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4호 HYUNBULNEWS.COM 2026년 7월 1일(음력 5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와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은 본회의 개원 전인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 ‘입법 폭거’…“가톨릭 시의회로 전락”

**서울시의회, 6월 24일 정례회서**
**종교편향특위 등 지속 반발에도**
**철회·폐기 조례안 2건 기습 상정**
**59명 중 47명·61명 중 48명 찬성**
**‘밥그릇 싸움’ 폄훼 의원도**
**보화 스님 “모니터링·法 대응”**
**종평위·시민연대, 규탄 잇따라**

김내영 · 이현희 기자

‘정교분리 원칙 위배’와 ‘특정 종교 특혜’ 논란으로 철회·폐기됐던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이 서울시의회 정례회 폐막 직전 기습 상정돼 결국 가결됐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폐기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를 강행 처리하면서 “반대 여론을 무시한 입법적 폭거”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4일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 서울시 조례안은 재석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7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은 재석의원 61명 가운데 찬성 48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한 차례 철회·폐기됐던 안건이다. 앞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6월 22일 회의를 열고 6월 15일 의사과에서 철회된 서울시 조례안과 4월 20일 의장 방침으로 폐기된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안으로 다시 채택해 본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특히 불교계는 본회의 직전까지 강하게 반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와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은 본회의 개원 전인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보화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교계와 시민단체 반대로 철회됐던 조례안을 정례회 폐막 직전인 6월 22일 ‘특별위원회안’으로 기습 상정해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행태”라며 “해당 조례안 입법 강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적 권한을 오남용한 서울특별시의회에 있다”고 규탄했다.

하루 전날인 6월 23일에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도 서울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과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교계의 반발에도 본회의에서는 찬반토론이 진행된 뒤 두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됐다.

찬성토론에 나선 문성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특정 종교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제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문 부위원장은 세계청년대회를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비교하며 “교황은 단순 종교지도자가 아니다. 전례 없는 초대형 운집 행사를 코앞에 두고 법적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의 문제 제기를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문 부위원장은 “특정 불교계가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불교계의 예산을 빼앗거나 행정 지원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교계가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이유도 없다. 세계청년대회를 특정 종교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서울시가 가진 포용력을 스스로 폄하하는 이중잣대”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보화 스님은 즉각 문성호 부위원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서울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화 스님은 “세계청년대회를 새만금 잼버리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은 문화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자 궤변”이라며 “오늘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의 의회가 아니라 ‘가톨릭 시의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편향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조례의 시행 과정과 예산 집행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스님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헌법소원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도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회의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기습 가결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종평위는 “조례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할 것”이라며 “서울 시민들과 함께 향후 집행될 예산과 행정 지원의 위법성 및 형평성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불교·원불교·개신교·천도교·천주교 및 범종교 학술·시민단체 26곳으로 구성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도 6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재의 요구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및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 비구니 원로 19명 추대
# 의장에 본각 스님 선출

**전국비구니회, 6월 22일 추대식**
**“비구니승가 올바로 서는 계기”**



한국 비구니 전통과 위상을 대표하는 원로 스님 19명이 제3대 비구니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원로의장에는 본각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6월 22일 서울 법륭사 만불전에서 ‘제21차 임시총회 및 제3대 원로회의 의원 추대식’을 봉행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기존 4명 육문(군위 법주사)·묘순(서울 삼선포교원)·성일(화성 신흥사)·영운(울산 석남사) 스님을 비롯해 수현(울산 반야선원)·능인(의정부 석림사)·진성(부산 회명사)·혜원(세종 신광사)·지연(서울 기원사)·효성(서울 수월암)·도혜(수원 봉녕사)·대우(괴산 남화사)·정우(부산 반야사)·화정(평택 명법사)·계호(서울 진관사)·본각(고양 금륜사)·상덕(서울 미타사정수암)·일진(청도 운문사)·성본(논산 법계사) 스님 등 15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해 최대 10년이다.

앞서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4월 원로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추대할 원로의원 자격심사요건을 점검한 후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5월 제2차 회의를 통해 자격심사를 실사해 기존 4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추대 원로의원을 확정했다.

신임 원로의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승가, 비구니회, 원로,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원로의원 스님, 비구니회 소임자 스님과 서로 상의하면서 한국의 비구니회가 세계에 우뚝 서고 안으로 수행정진하는 집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대식 후에는 후원금 전달도 진행됐다. 원로의원 효성 스님과 지연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각 1000만원을, 도혜 스님과 일진 스님이 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또 정각사 정목 스님과 사찰음식연구소 지견 스님이 회원장 후원금 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 조계종 “자연·문화유산 통합 관리 기대”

**‘자연공원법’ 개정 환영 논평**

조계종 총무원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자연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자연공원 관리 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22일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 스님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개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중심의 기존 보존 체계를 넘어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원자원의 개념이 문화경관까지 확대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교육·해설·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자연공원이 국민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체험하고 향유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올해 4월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기준이 확대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제시했다.

조계종은 “앞으로 전국 8만7000여 ha에 이르는 사찰림과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승려복지 및 아미타불교요양병원 후원 동참 안내

무량공덕 쌓는 승보공양
우리 종단은 스님이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가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는 출가 수행자의 교육·의료·주거·소득·장례 등 완전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사찰,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의 승보공양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보를 공양하면 그 복이 무한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원금 지원 내용

| 스님 복지비 지원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지원 |
| --- | --- |
| - 진료비 지원<br>-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br>- 국민건강보험료 지원<br>- 정밀건강검진비 지원<br>-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 진료비 지원<br>- 병원 운영 및 개선비 지원<br>- 제2병동 건립<br>* 재가불자 이용 가능 |

후원 동참 방법
• CMS 자동이체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전송 (사찰 종무소 비치,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전화 신청 : 02-2011-1981, 1982 / 010-2926-1726(토,일 휴무)
• ARS 전화 후원 : 060-700-1077(1통화 5,000원)
• 계좌이체 후원
- 승보공양 : 농협 301-0324-8575-91 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회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농협 317-0027-0531-51 의료법인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

문의
• 승려복지회 : 02-2011-1981 / 010-2926-1726 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02-2011-1982 / 031-677-2613 1752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9

※ 승보공양 후원 시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연말소득공제 및 기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로서
위의를 잃지 않고
지혜를 구하며 자비를 펼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은 승보공양 후원에 동참하여
무량한 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 조계종 임시종회, 성원 미달 '무산'…7월 재추진

**재적의원 81명 중 24명만 출석**
**1시간 대기 후 11시 산회 선포**
**대진 스님 "종단 위상 하락" 우려**
**법원 스님 "삼보정재 해명 필요"**
**도성 스님, 호소문서 참여 촉구**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 제238회 임시회가 성원 미달로 결국 개원하지 못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대표 발의자 보인 스님 등 종회의원 27명의 요구로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38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재적의원 81명 가운데 24명만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회의를 개원하지 못했다.

관례에 따라 약 1시간 동안 성원을 기다렸지만 끝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주경 스님은 오전 11시 산회를 선포했다.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법 제43조 '의장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7월 중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에는 선우회, 정법회, 비구니회, 화엄회, 무량회 등 여러 종책모임이 있다. 통상 종회에 앞서 회장단과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등이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이번에는 종책모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반대 의견도 있어 임시회가 성립되지 못했다"며 "7월 중 연석회의를 열어 이른 시일 내 임시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7월 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장단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각 종책모임에서도 참석하지 않은 종회의원들을 설득해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회의가 무산되자 일부 종회의원들은 종책질의 자료 배포와 부의장 불참 등을 언급하며 종회의원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종회 사무처가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 사용을 제한하자 일부 의원들이 "중앙종회의원의 의견 표현까지 제지하느냐"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중앙종회가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38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재적의원 81명 가운데 24명만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회의를 개원하지 못했다.

이후 발언에 나선 대진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은 1만2000여 명의 종도의 뜻을 받들어 종단의 입법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종도들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진 스님은 조계종의 위상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스님은 "조계종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장자종단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여러 종단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며 "개별 사찰 운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종회의원과 종단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고, 조계종의 위상 회복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책임을 통감하며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우회 종책위원장 법원 스님도 이번 임시회 소집 취지에 대해 "은해사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사업 기금 운용 등 종도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종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를 추진했다"며 "종회의원에게는 종도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는데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원 스님은 특히 "삼보정재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이 이뤄져야 하며,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선거가 과열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도성 스님도 종단 미래를 위한 종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종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성 스님은 "디지털 문명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에 종단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를 3개월 앞둔 만큼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 정비와 최근 불거진 종단 의전 실패, 종무행정 혼선 등도 입법부인 중앙종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도성 스님은 "이토록 시급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종도를 대변할 중앙종회는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며 "종단의 미래를 논하는 공적인 자리에 왜 참석하지 않는 것이며, 대화와 토론의 자리에 왜 나오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반대와 비판도 가능하지만 중앙종회의원이라면 회의장에 나와 종도들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그것이 종도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본질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 진우 스님, 잇단 예방서 '선명상 대중화' 당부

**국민 마음건강 진흥 강조해**
**서울시에 '정책협의체' 제안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예방한 정치계 인사들에게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방을 받고 "서울이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성과 위에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를 제대로 살피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국가유산 가운데 불교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고, 지방 불교문화유산까지 포함하면 70%를 상회한다"며 "유형 문화유산에는 역사와 국민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만큼 잘 보존·관리해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서울시와 불교계가 문화유산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23일 예방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에 대해서도 "종교를 떠나 국민 개개인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직접 체험해 보고 좋으면 스스로 채택해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 문화·종교 관련 정책 창구가 보다 원활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6월 2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예방에서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불교의 정신이 뿌리 깊게 깃들어 있고, 문화유산에는 고귀한 선조들의 정신들이 새겨져 있다"며 "이런 정신들이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유산 관리·보존에 있어 금액적 지원을 비롯해 지금보다 더욱 실질적인 방안으로 세심하게 실행하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6월 23일 이뤄진 김부겸 전 총리의 예방에서는 향후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환담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에 대한 소회를 전하며 "시민들이 보여준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정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더욱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같은 날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자와의 환담에서 진우 스님은 '충(忠)·효(孝)·예(禮)' 가치가 담긴 도정 운영 방향과 마음건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진우 스님은 감정 절제를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스님은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떨쳐낼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충·효·예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충·효·예 교육과 선명상을 조화롭게 접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6월 22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진우 스님은 "종교적인 면을 떠나, 국민 모두가 '마음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 나간다면 국민 통합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며 "어릴 때부터 받는 마음건강 교육이 세상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데도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 임은호 · 박지운 · 이현희 기자

# 한일 불교계 "신·행으로 세계평화 구현"

**제4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6월 17~20일, 일본 교토 연력사**
**공동선언문 채택 · 평화기원법회**



한일 불교계가 신(信)과 행(行)을 바탕으로, 서로를 법우로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천태종 총본산 히에이산 연력사(延曆寺)에서 제4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일 불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양국 불교계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17일 일본 사찰 탐방과 18일 학술강연회에 이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명안 스님(여래종 총무원장)과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사토 류이치 스님이 대표로 발표했다. 한일 불자들은 "자신의 과제를 자각하며 신과 행을 갈고 닦아 도반들과 깊은 교류를 나눈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도들은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서로를 법우로서 존중해 향상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며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19일에는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호소노 슌카이 스님의 집전으로 세계평화기원법회가 봉행됐다.

진우 스님은 "세계 평화는 개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수행이 뒷받침될 때 실현된다. 개개인의 마음이 선명상을 통해 평안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너도, 나도 꽃”…정념 스님의 미래 문명

**6월 19일 저서 출판기념회 개최**
**이광재와 AI · 불교 미래 등 대담**
**“AI, 인간 ‘업’ 먹고 사는 거울**
**화엄적 세계관으로 문명전환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 19일 열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에서 진행된 ‘저자와의 대화’에서 정념 스님이 이광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너도 꽃이 되고 나도 꽃이 되어 세상 모두가 향기로운 꽃밭이 되는 세상, 그 길을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갔으면 합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내보인 미래문명과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이다. 그 길은 ‘화엄’과 맞닿아 있다.

월정사와 도서출판 민족사는 6월 19일 서울 앰베서더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퇴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회의 백미는 ‘저자와의 대화’였다. 대담은 이광재 국회의원이 질문을 던지고 정념 스님이 저자로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먼저 “스님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분”이라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만든다면 어떤 길을 만들고 싶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념 스님은 “길이라는 것은 길 없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며 “시대에 걸맞은 길, 미래로 향하는 길이 지금 가장 절실한 길”이라고 답했다.

스님의 미래로 향하는 길은 AI시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념 스님은 AI시대를 “효율성이 극대화돼 인간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사라질 수도 있는 시대”로 전망하면서도 그 이면에 놓인 인간성 상실의 위험을 지적했다. 스님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사회가 재편될 경우 “데이터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되는 기술공학적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효율과 경쟁이 극대화될수록 공동체는 해체되고, 알고리즘은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AI시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될 수 있다. 그 영역을 앞으로 종교가 감당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인간의 업을 먹고 사는 거울”이라는 책의 일구(一句)는 정념 스님이 가진 AI에 대한 관점을 명징히 보여준다. 업이라는 것은 “과거의 행위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가 쌓여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기에 AI 역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어떤 가치관에 의해 사용되는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는 화엄사상과 선 수행을 함께 제시했다. 정념 스님은 “AI시대의 효율과 경쟁 문화는 탐진치가 극대화된 문명”이라고 경고하며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화엄의 사유와 인드라망의 세계관은 미래 생태문명을 형성하는 사상적 틀이자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시대에는 고독과 외로움, 정신적 병리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국불교의 조사선과 간화선 전통은 명상문화를 주도하는 정점에 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교구본사 주지, 주요기관장, 중앙종회의원 등 불교계 지도자부터 정치, 경제, 시민사회, 학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1000여 명이 운집해 눈길을 끌었다.

# “로봇 가사, AI 통찰 부족했다”

**정념 스님, 현장 기자간담회서**
**로봇 가사 착의, 선명상 비판**
**출마 관련 질문엔 “마다 않아”**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가 유력시되는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이 현재 조계종 총무원에서 진행 중인 선명상 대중화 사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가사 착의 퍼포먼스에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총무원장 선거 관련해서는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선거는 대중의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념 스님은 출판기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평소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전했다.

AI 대전환 시대 불교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 출발한 간담회는 자연스럽게 종단 운영 방향과 조계종 정체성 문제로 이어졌다. 정념 스님은 “AI에게 수계를 하거나 로봇에게 가사를 수하게 하는 것은 AI를 깊게 통찰하지 못한 결과”라며 “종교는 인간성의 문제이자 영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등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사를 입힌 장면에 대해서는 “AI 성직자나 사제, 수행자가 탄생하는 일은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값싸게 활용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며 “종교가 해야 할 일은 AI가 인간에게 봉사하고 인간과 원만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차원의 AI 윤리선언과 이를 만들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념 스님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특히 전쟁 등에서 AI가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명을 고려하지 않는 AI 선택에 의해 전쟁이 수행되는 문제에 대해 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불교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삶이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총무원이 추진하는 선명상 대중화에 대해 정념 스님은 “보편적으로 명상은 수행 문화의 의미를 지니지만 조계종 종지종통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스님은 “‘선명상’이라고 할 때는 선과 명상의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선도 명상의 한 부분이라는 식으로 규정되면 조계종이 추구하는 선종의 본령과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의 선풍은 조사선과 간화선에 바탕함을 강조한 스님은 “본래 도는 닦아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 전환을 통해 본래 닦을 것이 없음을 확연하게 체득하는 것”이라며 “구할 것도 닦을 것도 없는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조사선의 본령”이라고 했다.

종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퍼포먼스 형태의 이벤트 중심으로 교단이 나아가는 것은 정체성의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 관련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정념 스님은 “종교 집단의 선거는 세간의 사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선거 열풍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 풍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 큰 소임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마다할 일은 없다”고 답했다. 신중일 기자

# 원광 법사 후예들 “군포교 사명 다하겠다”

**군종교구, 6월 23일 서울 조계사서**
**‘제59기 신임 군승 고불식’ 봉행**

신임 군승 5명이 “원광 법사의 후예로 신명을 다해 장병들과 함께 군포교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6월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59기 신임 군승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신임 군승 59기(군종 84기) 5명이 부처님전에 군포교 원력을 서원하고 전법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에 임관한 군승은 육군 미공·무진·여여·정견 스님, 해군 문수 스님 등 5명이다. 군승들은 3월 26일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해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수료했다. 이후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진행된 7주간의 실무교육을 수행하고, 육군·해군 군승으로 6월 19일에 임관식을 무사히 마쳤다.

이날 신임 군승들은 발원문에서 “원광 법사의 후예로 임관하여 전역하는 그날까지 신명을 다바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군승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수행자의 본분사를 잃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님 법을 등불 삼아 장병들 곁에 항상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역사 속 스님들은 전란의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의 화현으로 구국에 앞장섰다”며 “선배 스님들의 정신을 계승해 부임하는 부대에서 참된 군종장교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무형전력 강화를 통한 강군육성에 앞장서고 ‘국군장병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라’는 부촉을 가슴에 새겨, 부루나 존자의 후예로 불법홍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불식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해 국방부 군종정책과 종오 스님, 제2작전사령부 현조 스님,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교육단장 지용 스님, 공군본부 군종실 진홍 스님, 현역 군승 등 3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신임 군승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고불식을 마친 신임 군승들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로 이동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진우 스님은 신임 군승들의 임관을 축하하며 “앞으로 젊은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미래의 불교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해 신임 군승들이 군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군인 불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신임 군승 5명은 6월 19일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열린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을 통해 정식 임관했다. 임관식 후 군법당 호국남성사(주지 능파 스님)에서는 군종교구 주관으로 임관축하 법회가 봉행됐다.

법원 스님은 법문에 앞서 신임 군승들을 직접 소개하며 격려했다. 법원 스님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출가한 것이고, 그다음이 군승이 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부처님 법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전방과 격오지 등 가장 절실하게 부처님 법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며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군승의 길을 선택한 의미를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지운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6월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59기 신임 군승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고불식에서 신임 군승 5명이 장궤합장하고 전법선언을 합송하며 군포교 소명을 다짐하는 모습.




조계종연구소

종책개발 논문공모전

~ 2026 10.31(토) 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연구소는 한국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불교의 중흥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부대중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를 종책 개발의 초석으로 삼고자 <종책개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공모 분야

논문 주제 (한 가지를 택하여 논문 작성)

1. 불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조계종의 미래 구상
2. AI시대와 선명상의 실천적 가치와 대중화 방안
3. AI전환기, 스마트 포교의 혁신 모델 제안
4.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사찰 역할 다각화 방안

최우수상 1명 (상금 500만원) 우수상 3명(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 5명(상금 각 200만원)

접수 기간
- 불기2570(2026)년 10월 31일까지
- 보내실 곳 : fourdeva@wehago.com (※우편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
- 문의: fourdeva@wehago.com / 02-2011-1993

수상자 발표
- 11월 심사 후 수상자 개별 통보 • 12월 시상식 개최

원고작성 요령(※이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 한글 워드프로세서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150매 이하.
- 1쪽에 논문 제목, 성명(법명, 스님일 경우 속명도 함께 기재), 현재의 소속 및 지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함.
- 2쪽에 제출하는 논문의 핵심에 대해 200자 원고지 600자 이상 800자 이내의 초록(요약)을 작성해야 함.
- 3쪽부터 본론 작성.

유의사항
-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보내야 함.
- 기존 논문의 표절, AI를 이용한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하며, 시상 이후에 밝혀졌을 경우 상장과 상금을 회수함.
- 선정된 종책 제안의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됨.
-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논문은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됨.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연구소

# 선명상, 재즈와 '마음 치유' 무대 펼친다

**7월 7일, 서울 마포아트센터**
**'치유를 위한 선명상 음악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치유를 위한 선명상 음악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서울 혜광사 선명상연구소장 덕안 스님, 국민평안선명상중앙본부장 일감 스님,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아쟁 연주가 신현식(왼쪽부터).

서울 혜광사(주지 덕현 스님)와 국민평안선명상중앙본부(본부장 일감 스님)가 선명상과 재즈를 접목한 치유 공연을 선보인다.

7월 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열리는 '나를 찾아가는 길 – 치유를 위한 선명상 음악회'는 선명상과 현대 예술치유를 결합한 융복합 공연이다.

이번 음악회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조계종이 주창해 온 '하루 5분 선명상'의 가치를 문화예술로 확장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음악과 침묵, 호흡이 교차하며 이어지는 100분간의 공연은 '듣는 공연'을 넘어 '함께 수행하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의 총연출과 음악감독은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맡는다. 웅산은 한국대중음악상 재즈 부문 수상을 비롯해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의 '블루노트'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며 한국 재즈를 대표해 온 아티스트다. 현재 한국재즈협회장과 서울재즈페스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재즈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무대에는 웅산을 비롯해 신현식(아쟁), 이아람(대금), 이봉근(판소리), 강선일(타악기), 이정식(색소폰), 김규식(첼로), 백경우(무용) 등 재즈와 국악, 전통예술 분야의 정상급 예술가들이 함께한다. 웅산밴드의 강재훈(피아노), 최우준(기타), 황호규(콘트라베이스), 신동진(드럼)도 참여해 장르를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감상형 음악회를 넘어 총 13곡, 100분간의 공연이 하나의 선명상 수행 여정이 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관객을 능동적 참여자이자 수행자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재즈와 국악 공연의 조화 속에서 호흡 명상 가이드와 감정 치유 세션이 함께 진행된다. 영상과 조명을 결합한 연출을 통해 관객들이 공연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도하며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도록 구성했다.

혜광사와 국민평안선명상중앙본부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선명상과 예술치유를 결합한 공공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과 문화공간에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치유예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평안선명상중앙본부장 일감 스님은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명상은 한국불교 고유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복잡한 종교적 형식 없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이라며 "하루 5분 선명상 운동을 통해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어온 온 경험을 통해 이번 공연은 그 가치를 문화예술로 확장한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리에 함께한 웅산 감독도 "예술과 명상이 만나는 이번 음악회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선명상이 일상 속 치유문화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행사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선명상 음악회 공식 인스타그램(@seon_concert)에서 확인 가능하다. 010-8067-2371

# 태고종 "미혼모 가족에게 쉼과 희망을"

**6월 20일, 양주 청련사·두리랜드**
**'따뜻한 마음과 사랑 나누는 동행'**


태고종은 6월 20일 양주 청련사와 두리랜드 일원에서 미혼모 가족 프로그램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동행'을 개최했다. 사진은 '희망꾸러미 키트' 전달 모습.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미혼모 가족들에게 쉼과 위로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6월 20일 양주 청련사와 두리랜드 일원에서 미혼모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동행'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소속 가족 130명이 참석해 명상과 사찰 체험, 놀이문화 체험 등을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자녀 간 유대감 회복,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마음을 돌보고 가족이 함께 역동적인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뒀다.

양주 청련사에 모인 참가자들은 먼저 경내를 둘러보며 자연 속에서 명상을 체험했다. 사찰음식 공양과 차담을 통해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두리랜드로 이동해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자녀와 교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태고종 측은 응급상황에 대비, 인근 병원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대기 동선을 확인하는 등 야외활동에 만전을 기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과 응원의 시간을 이어갔다.

태고종 총무원은 이날 각 가정에 5만원 상당의 '희망꾸러미 키트'도 전달했다. 꾸러미에는 간편식과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이 담겼다.

태고종은 사업을 통해 미혼모 가정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고, 가족 간 자연스러운 교류로 상호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사업을 미혼모 가정의 정서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태고종 측은 "미혼모 가정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심리적 고립감과 사회적 편견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문화체험이 가족들에게 쉼과 희망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동행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고종 총무원이 주관하고 청련사와 한국불교태고종복지재단, 한국미래복지재단, 해병대전우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이 후원했다.

임은호 기자

# 동국대, 2027 QS 평가 520위…'98위 UP'

**교육 · 연구 등 5개 지표 약진**
**종교학 세계 51~100위권 등**

영국 글로벌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세계 대학평가에서 동국대 순위가 98계단 수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QS가 6월 18일 발표한 '2027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전년대비 98위 수직 상승한 세계 520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국대는 202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순위 상승세를 이어갔다.

QS 세계대학평가는 학계 평판도, 산업계 평판도, 교수당 학생 비율, 교수당 피인용 수,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국제 공동 네트워크, 취업 성과, 지속 가능성 등 9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동국대는 총 5개 평가 영역에서 약진하여 종합 순위의 상승을 견인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계 평판도가 154위에 올랐으며, 교수당 피인용 수 영역에서 126위 상승했다. 이 외에 외국인 학생 비율(62위 상승), 외국인 교수 비율(31위 상승), 지속가능성(19위 상승) 등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연구 인프라 개선 등 교수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을 활성화하여 연구와 국제화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앞서 동국대는 지난 3월 발표된 '2026 세계대학평가 전공 분야별 순위'에서 종교학 분야가 세계 51~100위권에 올라 불교 종립대학으로 교육과 연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외에도, 언어학이 세계 201~250위권, 약학의 경우 세계 351~400위권에 오르는 등 여러 분야에서 고루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신중일 기자

# "청년 장병 마음 주파수 맞춰야"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제34회 호국불교포럼'**




예비역 불자 장병들이 청년 군포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만소 스님은 '고립증후군'을 겪는 해군들을 위한 '맞춤형 음원 제작'과 '마음 치유 코칭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이영주)는 6월 24일 서울 원광사에서 '제34회 호국불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청년 장병의 마음 주파수를 맞추다'를 발표한 만소 스님(해군 재경대대 소령)은 출가 전 래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군포교 방안을 발표했다. 만소 스님은 "해군 장병들은 휴대전화 신호마저 끊긴 망망대해 위에서 소통의 단절과 극심한 불안감이 엄습하는 '고립증후군'을 경험한다"며 "이때 '오디오 명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장병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우 육군부사관학교 소령은 '호국불교 가치 재정립 및 군 생활 적용 방안' 발표에서 "과거 군법당과 대면 법회 중심의 포교 방식에서 짧은 영상과 명상 콘텐츠, 온라인 법문 등 디지털 포교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교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고문은 '호국불교의 역사와 현대적 계승 방안' 기조 발제에서 장병들의 마음 관리법으로 '명상·과학을 통한 마음근력 강화 방법'을 제안하고 "장병을 위한 현장 맞춤형 명상 방안을 부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운 기자

# 라오스 동자승 279명에 희망 전했다

**로터스월드 · 아름다운동행 사업**
**식료품·학용품 등 지원 환경 개선**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5월 28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왓파오(Wat Phao) 사찰에서 취약계층 아동 교육지원 및 동자스님 수행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의 NGO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이번 지원을 통해 사찰에서 생활하는 동자 스님 279명에게 쌀 3125kg을 비롯해 라면 80박스, 세제 30박스, 비누 30박스, 공책 200팩, 연필 200세트, 개정 교과서 470권, 교사용 지도서 71권 등이 전달됐다. 식료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학습에 필요한 교육물품까지 함께 지원해 수행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루앙프라방의 왓파오 사찰은 라오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찰 가운데 하나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7학년에 해당하는 동자 스님 279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수행과 함께 사찰 내 학교에서 라오스 정규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다.

한때 500명이 넘는 동자 스님이 수행했던 왓파오 사찰은 식량과 교육물품 부족, 교육시설 노후화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약 279명만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원으로 사찰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동자 스님들에게 공양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로터스월드는 이번 지원에 이어 오는 9월 식료품과 학용품을 추가로 지원하는 2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25-4277 후원계좌: 농협 301-0058-7941-81

임은호 기자


**"아리셀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참사 2주기 추모제'에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추모기도를 진행했다. 사노위는 참사 이후 분향소 설치 기도, 진상규명 기도 활동, 희생자 가족 지원, 49재, 1주기 추모제 등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현희 기자

# '나는 절로 낙산사' 4225명 지원 '역대 최다'

**남성 165.5대1 · 여성 257대1**
**8월 중 수도권서 진행 예정**

'나는 절로' 낙산사 편에 총 4225명이 지원하면서 역대 최다 신청자를 기록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남성 1665명·여성 2570명이 지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남녀 각 10명을 모집하는 이번 낙산사 편에는 남성 165.5대1·여성 25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성현)과 협업으로 양양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에서 열리는 '나는 절로, 낙산사'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낙산사 다래헌 카페에서 일대일 차담, 낙산해변에서의 커플요가, 조깅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데이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도륜 스님은 "엄청난 성원과 열기를 보내준 참가자들에게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해 많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복지재단은 8월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나는 절로'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 조계종 중신회, 제2회 골프대회 성료

**6월 23일, 60팀 · 240명 참가**
**단체전 우승, 제11교구신도회**




전국 불자들이 자선 골프대회를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자비 나눔도 실천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6월 23일 청주 세레니티CC에서 '제2회 중앙신도회장배 전국 불자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직할교구신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교구신도회와 신도단체 소속 불자 60개 팀, 24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 시작에 앞서 정원주 회장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전국의 불자들과 함께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자비 나눔에 동참해 주신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는 단체전 우승은 제11교구신도회(불국사)가, 준우승은 직할교구신도회가, 개인전 메달리스트는 박정기 불자(남·18교구 백양사), 이명희 불자(여·22교구 대흥사)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이날 마련된 자선기금은 직할교구신도회에 전달됐으며 향후 불자와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나눔 사업에 회향될 예정이다.

박지운 기자

#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⑩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무공 스님은… 1977년 지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9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4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승가대학과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국사 불국선원에서 첫 안거를 난 이후 대흥사, 내소사, 불갑사, 백장암, 백양사, 운문암, 해인사, 통도사, 망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백양사 재무국장,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하고 용흥사 몽산선원장, 백양사 고불선원장 · 운문선원장으로 후학을 지도했다. 2020년부터 백양사 주지로 교구를 이끌고 있으며, 정관학원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수행과 포교로 일구는 '모범백양'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백암산 자락에 자리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는 한국불교 수행 전통의 맥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고려 각진 국사와 조선시대 소요·편양·진묵 스님을 비롯해 근현대 만암·서옹·수산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식이 이곳에서 수행의 향기를 피워냈다. 특히 '북 마하연, 남 운문'이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백양사는 운문선원을 중심으로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수행도량이다.

2019년 고불총림 해제 이후 백양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수행가풍을 지키면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춘 포교와 문화, 교육의 역할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2020년부터 교구장 소임을 맡고 있는 무공 스님은 "총림은 제도가 아니라 정신"이라며 "수행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가 6월 23일 백양사를 찾아 무공 스님에게 교구 운영 방향과 수행가풍 계승, 포교 비전, 백양사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 들었다.

**Q 스님께서 그동안 교구를 이끌며 가장 중점을 두어온 방향은 무엇입니까?**

총림이 해제되고 어른 스님들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교구장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평생 선방에서 수행만 하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여러 차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40년 넘게 살아온 백양사가 곧 제 집이라는 책임감으로 맡게 됐습니다.

당시 가장 큰 과제는 화합이었습니다. 오직 화합과 안정, 그리고 백양사가 지켜온 수행 전통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사전 예불과 조석예불, 공양과 울력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교구장인 제가 흐트러지면 본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에, 3년 정도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임기부터는 포교에 진력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행정진법회 등 다양한 포교와 불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총림 해제 이후 백양사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정적으로는 총림이 해제됐지만 백양사의 정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백양사를 '고불총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림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수행과 교육, 공동체 정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고불선원과 운문선원을 운영하고 있고, 용흥사에서는 율원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가자 감소로 강원 운영은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수행의 정신만큼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행공동체라는 백양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포교와 사회적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교구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수행제일 모범제일'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모범백양'이란 무엇입니까?**

모범백양은 수행과 포교를 함께 실천하는 도량을 의미합니다. 만암 대종사께서 백양사를 이끌던 시절에는 수행도량이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한 포교를 펼친 사찰이었습니다. 포교사를 양성해 전국 각지로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스님들은 수행도 철저했고 생활 또한 모범적이었습니다.



'도암당 인정 대사 진영' 이 백양사의 노력으로 2024년 환지본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왼쪽)과 주지 무공 스님이 미국에서 돌아온 진영을 친견하는 모습.

최근 법화삼매참법을 복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화삼매참법과 점찰법, 낙화법은 본래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참회 수행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맥이 끊겼지만 백양사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복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말사와의 소통과 협력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교구 운영은 본사와 말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승납 20년 이상의 스님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교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60여 개 말사 가운데 분담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찰이 있을 정도로 상당수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본사 역시 넉넉하지 않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지 스님들이 교구 사정을 잘 이해하고 적극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천진암 사찰음식 템플스테이와 고불매 축제 등 문화포교도 활발합니다.**

문화는 대중이 불교와 만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통로입니다. 백양사에는 400년이 넘는 고불매가 있고, 천진암 사찰음식이라는 훌륭한 문화 자산도 있습니다.

고불매 축제도 그런 고민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봄에는 매화가, 가을에는 단풍이 사람들을 절로 오게 합니다. 먼저 절을 찾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문화포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Q 청년 포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불교의 미래입니다. 백양사는 일제강점기 광성의숙을 세우고 1946년 정광학원을 설립하며 교육 불사를 펼쳤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광학원은 백양사의 말사라 생각할 정도로 애정이 남다릅니다. 또 마음캠프 등을 통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절과 친숙해지고 불교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만암 대종사를 비롯한 선대 스님들의 업적 연구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백양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선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불총림연구원을 출범하고 〈만암평전〉도 발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역대 조사 스님들의 수행과 사상을 연구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Q 임기 중 성보 환수에도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학인 시절 조사전 부전을 맡고 있을 때 조사 영정이 도난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늘 마음 한편에 죄송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지 소임을 맡은 뒤 도암당 인정 대사 진영과 지장암 현왕도 환수에 더욱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재는 조사전을 정비하고 역사적 고증을 거쳐 모두 47위 조사 영정을 새롭게 조성하는 불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 때 소실된 오백나한전 복원 불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원을 넘어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고 싶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현대 문명을 반영한 나한상을 통해 화엄의 세계관을 새롭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Q 앞으로 백양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수행과 포교 두 가지입니다. 백양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의 근본을 잃지 않는 사찰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불총림 정신입니다.

동시에 시대에 맞는 포교도 해야 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AI시대가 오고 사회가 빠르게 바뀌어도 자기 근본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수행자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어떤 변화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양사는 1400년 동안 수행과 전법의 등불을 지켜온 도량입니다. 앞으로도 수행제일의 가풍을 잃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열린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양사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공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원력에 보답할 수 있도록 수행과 포교, 문화와 교육의 길을 더욱 충실히 걸어가겠습니다.




백양사는 '고불총림'의 정신을 잇기 위해 선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하안거에는 고불선원과 운문선원에 23명의 납자가 방부를 들였다.



오랜 숙원사업인 오백나한전 복원불사가 지난 5월 상량식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오백나한상을 한 분 한 분 친견할 수 있는 현대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천연기념물 백양사 고불매가 꽃망울을 터뜨릴 때면 축제가 열려 상춘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고불매(古佛梅)는 '부처님의 옛 가르침을 기린다' 는 뜻이다.




백양사는 아이들이 사찰과 불교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명상 중심의 캠프를 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백양아이 여름 명상캠프' 모습.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이사가 대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단오 소금으로 "마음속 화마 해소"

〈火魔〉

**통도사 용왕재로 '화합' 되새겨**
**해인사 팔만대장경 · 가야산 수호**
**범어사 고당재서 시민 안전 기원**
**내원사도 천성산 자연 보존 발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영축총림 통도사는 6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병오년 단오 용왕재'를 봉행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이 동참 불자들에게 화마를 막는 의미가 담긴 소금을 나누어주고 있다.

민족 명절 단오를 맞아 전국 주요 사찰들이 화마(火魔)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전통의 식을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6월 19일 설법전에서 화마를 막고 도량과 대중의 안전을 기원하는 '병오년 단오 용왕재'를 봉행했다. 용왕재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사중 소임자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성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용왕재가 단순한 화재 예방 의식을 넘어 현대 사회와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방편임을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오늘 용왕재는 모든 갈등을 다스리고 화합의 지혜를 되새기는 자리"라며 "참석한 모든 분에게 마음속 화마를 진압할 수 있는 여의주를 무상으로 선물하니, 각자의 가정과 내면에 화재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법회 직후 통도사는 경내 각 전각 기둥에 올려진 소금단지를 새것으로 교체하며 도량의 안전을 서원했다. 동참한 불자들에게는 항화마진언(降火魔眞言)과 대광명전 평방에 새겨진 게송이 적힌 소금 봉투가 배포됐다.

소금 봉투에 적힌 '오가유일객(吾家有一客) 정시해중인(定時海中人) 구탄천창수(口呑天漲水) 능살화정신(能殺火情神)'은 "우리 집에 한 분 손님이 계시니 바로 바다 속에 사는 사람이다. 입에는 하늘에 넘치는 물을 머금어 불의 정신을 소멸할 수 있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도 단오를 맞아 6월 19일 경내와 가야산 남산제일봉 일원에서 '소금 묻기' 등 전통문화행사를 봉행하며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수호,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다. 해인사는 매년 단오가 되면 경내와 가야산 일원에 소금을 묻는 의식을 이어오며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팔만대장경과 사찰, 그리고 가야산 산림을 보호하고자 하는 서원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법보전에 봉안했던 소금단지를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에게 전달하는 의식에 이어 대중은 대적광전에서 우화당, 봉황문, 율학승가대학원 앞 삼거리, 용탑선원 입구를 거쳐 가야산 남산제일봉인 매화산으로 이동했다.

남산제일봉에서는 반야심경 봉독과 축원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석 대중은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 가야산 산림의 보호와 국태민안, 사부대중의 안녕을 발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량 수호의 서원을 담아 법보전에 봉안했던 소금을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며 도량을 지키고자 했던 발원을 각 가정으로 이어가고,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나아가 모든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함께 나눴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도 단오절을 맞아 금정산 정상에서 부산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염원하는 특별한 법석을 마련했다.

범어사는 6월 19일 금정산 고당봉 고모당에서 '병오년 단오 고당재'를 엄수했다. 이날 법회에는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은 이날 헌공하며 금정산에 깃든 모든 생명의 안위와 부산 시민의 행복을 발원했다.

단오 고당재는 범어사가 매년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는 불교 전통 의식이다. 사찰과 산중의 화재를 예방하고 수행 도량을 굳건히 수호하려는 선대 스님들의 호국불교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의식이 열린 고모당은 산왕대신과 더불어 임진왜란 당시 범어사를 외호했던 화주보살 밀양 박씨를 고모영신(姑母靈神)으로 모신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전각이다.

**양산 내원사**(주지 지은 스님)는 6월 19일 천성산 정상에서 단오제를 봉행하며 원효봉 습지의 원형 복원과 천성산 자연환경 보전을 발원했다.

내원사는 매년 단오를 맞아 천성산 정상에서 산재(山祭)를 봉행하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다. 특히 올해 단오제는 오랫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훼손된 원효봉 일대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태계 회복에 대한 염원을 담아 더욱 의미를 더했다.

# 인도에 한글 도서 2만권 기증

**6월 18일, 세상을향기롭게**
**정여 스님 책 번역 인연으로**
**디브르가대 한글센터에 전달**




부산 지역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의료 시민단체가 인도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해 대규모 도서 보시행을 펼쳤다.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 스님·금정총림 방장)와 국제종교연합은 6월 18일 부산 온병원에서 '인도 아삼주 한글도서 기증식'을 열고 2만권의 책을 현지로 발송했다. 이번 나눔에는 범어사를 비롯해 그린닥터스재단, 온병원그룹 등 부산 지역사회가 종교와 이념을 넘어 한마음으로 동참했다.

이날 컨테이너에 실려 부산신항을 출발한 184개 상자 분량의 도서는 소설과 수필, 역사서,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서적으로 구성됐다. 목적지는 인도 아삼주에 위치한 디브르가대학교(Dibrugarh University) 한글센터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세상을향기롭게와 그린닥터스재단이 인도 아삼주에서 전개한 의료 및 교육 봉사가 마중물이 됐다. 당시 디브르가대 한글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정여 스님의 저서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을 인도어로 번역해 출간하는 뜻깊은 인연이 맺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현지 학생들의 열정은 높지만 정작 읽을 수 있는 한글 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현지의 소식을 접한 부산 지역 단체들은 디브르가대학교 내 한국어 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서 모으기 운동에 돌입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2만권의 장서가 마련됐으며, 운송비용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개최한 아삼 봉사 사진전 수익금과 십시일반 모인 기부금으로 마련했다.

이날 발송식에는 세상을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과 임영문 평화교회 목사, 신요안 안락성당 신부,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생명 존중과 화합의 가치를 나눴다.

정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디브르가대학교 한글학과 졸업생이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을 인도어로 번역해 출판한 인연으로 현지를 방문했을 때, 한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요청을 받고 기증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이 행복해야 비로소 나 자신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며 "아삼 지역 학생들이 우리가 보낸 책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미소원 청년회, 장애청년 홀로서기 후원

**6월 20일, 부산장애인복지관**
**자립 장학금 500만원 전달**



장애를 안고 사회라는 낯선 무대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미소원 청년들이 따뜻하고 든든한 동반자로 나섰다.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다겸)는 6월 20일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26년 청년 장애인 자립 응원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장애청년 5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 사업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들은 획일화된 용도가 아닌 취업 준비용 노트북 구매, 전문 자격증 취득, 체육 특기 개발을 위한 장비 마련, 재활 치료 등 각자가 세운 맞춤형 진로 계획에 따라 장학금을 활용하게 된다.

장학생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양주원 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컸으나 이번 장학금이 큰 용기가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양 씨는 "그동안 온라인 영상으로 어렵게 독학하던 일본어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배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다겸 미소원 청년회장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신청서 속에서 저마다의 소중한 꿈과 마주할 수 있었다"며 "이 장학금이 청년들이 사회라는 거친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때 믿고 딛을 수 있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동련, "경쟁 넘어 공존" 지도자 연수

**6월 20일, 경주 황룡원서**
**전국 연꽃문화제 시상도**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미수 스님)이 다가오는 여름불교학교를 앞두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사단법인 동련과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제80차 전국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80여 명의 전국 어린이 불교 지도자가 동참한 이번 연수회는 '우리가 만나는 붓다피아'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의 관계기술에 주목했다.

참가자들은 여름불교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나는 율동과 협동 놀이, 마음을 나누는 만들기 활동 등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프로그램은 경쟁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일깨우고, 사찰 내에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번 연수회 기간 중 '제42회 전국 연꽃문화제 시상식'도 함께 거행됐다. 본상 수상자 18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 가운데, 글짓기 부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서대전초등학교 5학년 김율곡 어린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동련 부총재 운성 스님이 시상했다. 이어 부문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울산 선암어린이집 주하운(6세) 어린이가 받았으며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상장을 수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포교사단 부산, 상반기 분야별 연수

**6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관**
**'스피치 특강' 전문성 높여**



탈종교 시대를 맞아 진정성 있는 언어와 소통 능력으로 전법의 새길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지역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박종안)은 6월 20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2026년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상반기 분야별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포교사들의 수행과 포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종단이 추진하는 명상 포교의 대중화를 이끌 인적 자산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포교국장 해공 스님, 정연숙 포교사단 부단장, 박종안 부산지역단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포교사 400여 명이 동참해 전법의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특히 올해 연수는 매년 진행하던 팀별 활동 사례 발표를 자료집으로 대체하고, 포교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질인 '스피치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방송 1기 아나운서 출신인 이현정 강사의 '포교도 결국 스피치다' 주제 특강 통해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전달력과 의사소통 기법, 조직 내 리더십 등을 배웠다.

이날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포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당부했다.

박종안 부산지역단장은 "이번 연수가 포교사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부산 불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포교사단 경남, 명상포교 방안 모색

**6월 21일, 쌍계사서 연수교육**
**포교환경 변화 대응 · 역량 강화**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이원환)은 6월 21일 하동 쌍계사 템플관에서 '2026 경남지역단 분야별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원환 경남지역단장은 인사말에서 "종교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탈종교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포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명상과 소통, 불교문화해설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포교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수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정연숙 부단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명상상담사 자격과정을 통해 포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상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법문에서 "포교와 수행의 현장에서도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수는 명상포교와 불교문화해설, 소통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포교환경에 대응해 전문 포교사의 역할과 명상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승가 일원 사명감으로 정진"

**대승불교조계종, 법계 품서**
**종사2 · 명덕5 · 종덕1 · 혜덕2명**



한국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관 스님)은 6월 22일 울산 미정사에서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품계수여식에서는 종사 2명, 명덕 5명, 종덕 1명, 혜덕 2명 등 총 10명이 법계증을 받았다.

총무원장 혜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더욱 굳건히 하고 정법을 수호하는 승가의 일원으로서 계율을 지키며 수행정진에 힘써야 한다"며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종단의 법계 질서가 원칙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과 집행부, 그리고 오늘 품계를 받은 스님들 모두가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종단 구성원들의 화합과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

**"내년엔 더 여법한 연등회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6월 24일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2570 부산연등회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다.

올해 부산연등회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부산연등문화제에 약 25만명의 시민이 다녀갔으며, 5월 16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열린 부산연등회 본 행사에도 약 5000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4월 박봉덕 한지체험관에서 진행된 전통등 및 특별 전 관불단 지화 강습회는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사무총장 석산 스님은 "행사 중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은 현장 실무자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여법하고 찬란한 부산연등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정구창 공불련 회장 “수행공동체 강화”

**6월 29일, 수덕사서 취임법회**
**진우 스님 “선명상 확산 앞장”**
**성지 순례, 합동수계법회 진행**

예산=유재상 충청지사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6월 20일 덕숭총림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제14대 정구창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정구청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등 주요 내빈들의 기념촬영 모습.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취임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6월 20일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 황하정루에서 제14대 정구창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제30차 성지순례 및 제23차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수덕사 승가대학장 화담 스님,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묘장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공직의 자리는 국민의 고통을 덜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보살도의 현장”이라며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고 청년 공직자 포교와 선명상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인사말에서 “공불련 회장 취임법회와 성지순례, 합동수계법회를 수덕사에서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직 현장은 국민을 위한 보살행의 실천도량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청정한 행정이 사회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창 회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불자로서의 서원을 하나로 삼아 국민을 위한 봉사와 수행이 둘이 아님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비와 지혜를 공직 현장에서 실천하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행공동체를 강화하고 회원 간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며 사회봉사와 나눔 실천을 꾸준히 전개하겠다”며 “청년 공직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연합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수덕사 합창단이 축하 음성공양을 올렸으며 참석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불자로서의 수행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취임법회에 앞서 저녁 예불에 동참하며 신심을 다졌으며, 법회 후에는 초은 스님의 지도로 싱잉볼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직 생활 속에서 쌓인 피로와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임원 간담회에서는 조직 운영과 회원 확대, 포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연합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계사로 한 합동수계법회와 성지순례가 진행돼 불자로서의 서원을 새롭게 다지고 한국 선불교의 전통과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

# 동화사, 제1기 ‘무문 출가학교’ 입재

**6월 19일, 통일대불전서 고불식**
**‘나는 누구인가’ 화두로 9박 10일**
**남녀 19명 참여해 수행자 삶 체험**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6월 19일 ‘제1기 무문 단기출가학교’ 고불식을 봉행하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은 행자 삭발식 모습.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6월 19일 통일대불전에서 ‘제1기 무문(無門) 단기출가학교’ 고불식을 봉행하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동화사가 주관한 이번 단기출가학교는 ‘나는 누구인가, 호국의 도량에서 무문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다. 남행자 8명과 여행자 11명 등 모두 19명이 입교해 6월 28일까지 9박 10일 동안 수행자의 삶을 체험한다.

참가자들은 입산과 함께 갈마의식과 기본습의, 삭발식을 통해 수행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사찰 청규에 따라 새벽예불과 108배 정진, 발우공양, 참선, 좌선과 포행, 운력, 삼보일배, 수계, 불교기초교리, 법문, 수행일지 작성 등 전통 승가의 일상을 그대로 경험하며 수행의 의미를 몸소 익히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으며 본래의 마음을 마주하는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 동화사는 참가자들이 수행자의 엄격한 생활을 경험하며 부처님 가르침과 출가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고불식에는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과 연수원장 혜문 스님,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동화사는 호국의 성지이자 수행의 본을 익힐 수 있는 도량”이라며 “진리의 문턱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틔운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세상 속에서 지혜의 숲으로 자라나 자신과 이웃, 사회를 밝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주지 선광 스님은 환영사에서 “이번 단기출가학교는 세속에서의 익숙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아보는 소중한 인연”이라며 “청규를 성실히 지키며 수행자다운 행자 생활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소중함과 삶의 유익함을 직접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수원장 혜문 스님도 고불문을 통해 “오늘부터 잠시나마 세속의 일을 내려놓고 출가자의 옷을 입어 계율을 익히며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며 “이번 인연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어있는 참나를 만나는 뜻깊은 수행의 시간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동화사는 이번 제1기 무문 단기출가학교를 시작으로 수행과 명상을 통해 현대인들이 삶을 성찰하고 출가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 세종전통문화체험관, 한국영상대와 MOU

**6월 18일, 미래인재 양성에 협력**
**탄대 스님 “전통문화 현대적 계승”**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탄대 스님)이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주현)와 손잡고 전통문화와 K-콘텐츠를 접목한 지역 인재 양성과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한국영상대학교는 6월 18일 세종 한국영상대학교 본관 9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과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개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평생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 사업 및 프로그램 공동 홍보,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탄대 스님은 인사말에서 “국내외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를 접하면서 영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희 행정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을 미래 성장동력인 K-콘텐츠와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보유한 전통문화 자원과 한국영상대학교의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역량이 만나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교육모델과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광주 문빈정사, 지장전·봉안당 기공

**6월 21일, 지진법회 및 기공식**
**1600평 확보…연말 준공 목표**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공 스님)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지장전 및 봉안당 조성불사의 첫 삽을 떴다.

문빈정사는 6월 21일 ‘지장전 및 봉안당 조성 지진법회 및 기공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불사에 돌입했다.

주지 법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착공하는 지장전은 지장보살님의 대원력 아래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부모 은혜와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참회의 도량이자 효행의 도량”이라며 “누구나 편안하게 참배하고 기도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열린 수행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문빈정사는 무등산에 들어선 첫 사찰로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불사 하나하나가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불자들의 원력을 담아내는 일인 만큼 문빈정사가 민주와 신행, 포교의 도량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격려사에 나선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과거 이곳은 소박한 도량이었지만 지금은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로 성장했다”며 “법공 스님의 원력으로 또 한 번 큰 불사가 시작된 만큼 지장전 불사가 원만히 성취돼 세세생생 이어지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과보고에 나선 김영관 신도회장은 “사찰 주변 핵심 부지 약 1600여 평을 확보해 수행환경 보존과 향후 주차장 및 신도 편의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장전 및 봉안당은 연면적 116평 규모의 지상 2층 한옥형 건축물로 조성되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진안 쌍봉사, 제5회 사랑나눔 한마당

**6월 19일, 장애인·어르신 150명**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와 쌍봉사 반찬나눔봉사단(회장 김진옥)은 6월 1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5회 사랑나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진안군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꿈드레, 보듬 청소년 복지관,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소속 장애인과 어르신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쌍봉사 반찬나눔 봉사단, 신도회 자원봉사자들은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봉사자들과 연대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폈다. 특히 진안군 성당 뒤 인보의 집 마티아 수녀 일행도 자리를 함께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서로를 위하고 돕는 삶이 곧 불교의 실천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계속 확산해가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다시 한 번 진안군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는 8월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는 만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이 찾아와 머무는 따뜻한 진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부 어울림 공연에서는 꿈드레장애인협회 김규온 회원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가 시작됐다. 이어 김춘심 시각장애인협회 지회장, 오태문·김현수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회원 등이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괴산 공림사, 탄성 대종사 법향집 봉정

**6월 20일, 26주기 추모다례재**



조계종 제27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진공당 탄성 대종사의 수행 정신과 자비행을 기리는 추모다례재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법향집이 봉정됐다.

괴산 공림사(주지 원호 스님)는 6월 20일 진공당 탄성대종사 26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생애와 수행 정신을 담은 법향집 〈자비와 인욕의 수행자〉를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는 추모사에서 “탄성 대종사는 한국불교 교단 정화 이후 혼란한 시대에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열어주신 큰 어른”이라며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호흡한 살아있는 보살이었다”고 회고했다.

문도대표 인사말에 나선 도공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 남기신 수행과 전법의 자취가 잊히지 않도록 법향집 〈자비와 인욕의 수행자〉를 발간했다”며 “큰스님의 가르침이 앞으로도 한국불교와 후학들의 정진 속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탄성 스님은 제27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공림사 중창과 태전사 창건, 후학 양성, 포교 활동에 힘쓰며 한국불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갑룡장학회, 장학금 1000만원 기탁

**6월 24일, 진안군청서 전달식**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가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 진안군수)에 인재 육성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6월 24일 진안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전달식은 지난 2021년 양 기관이 맺은 5년간의 장학금 기탁 협약이 완료된 후에도 이어진 6번째 전달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붓다봉사단에서 국수 나눔을 하며 어르신들이 나눠주신 동전들과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마음을 보탰다”며 “진안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는 “이번 장학금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이 진안 전체를 바라보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큰 사랑의 실천”이라며 “군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제1회 평창 부석사 웰니스 축제 성료

**6월 20일, 사찰·지역 상생**



평창 부석사(주지 설해 스님)는 6월 20일 경내 일원에서 ‘제1회 평창 부석사 웰니스 축제’를 성료했다.

이날 행사는 △찻자리 시음·시식 △정목 스님 강연 △사불과 꽃·기와 그림 그리기 △소리명상 △개성주악 만들기 △아나바다 환경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나방송의 정목 스님은 ‘나눌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했으며, 아나바다 환경장터 수익금은 산간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의리에 전달됐다.

주지 설해 스님은 “평창 부석사는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곳으로, 그 자체가 치유의 공간”이라며 “많은 이들이 화의리와 부석사를 찾아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표를 찍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 ‘마음·견성’ 본질 살필 법석 열렸다

대행선연구원 설립 10주년 학술대회

## 6월 20일 역사문화기념관서
## 초기불교 · 대행선 등 관점서
## 마음 · 견성으로 ‘선불교’ 조망

## 최원섭, 대행 선사 견성성불관
## 1990년대 돈점 논쟁 통해 조명
## “대행 선사, 지눌 돈오점수 수용”
## ‘오후보림’ 현대 의미 조명도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6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내빈과 발제자, 논평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선불교의 핵심인 ‘마음’과 ‘견성(見性)’을 통해 선불교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는 법석이 열렸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6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행선연구원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을 중심으로 초기불교와 중국 선종, 한국 선불교, 대행 선사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며 이를 통해 선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한마음과 견성’을 통해 대행 선사의 견성성불관을 1990년대 한국불교계를 달군 돈점 논쟁의 맥락에서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퇴옹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를 통해 “선문에서의 견성은 곧 구경묘각이며, 견성 이후 다시 닦아 성불한다는 돈오점수론은 선종 정통의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론을 둘러싼 논쟁이 한국불교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 역시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론을 법문에서 인용했으며, “선사의 견성성불관이 돈오점수의 구조 속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봤다. 다만 대행 선사는 돈오점수와 돈오돈수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르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오히려 돈오와 점수가 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행 선사는 ‘돈오’를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점수’를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는 것에 비유했다. “돈오는 탄생하는 것이요, 길러내는 것은 점수”라는 설명이다. 이는 보조 지눌이 〈수심결〉에서 돈오를 자기 본성을 문득 보는 일로, 점수를 깨달음에 의지해 성태를 길러 성인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한 것과 상통한다.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는 늘 생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가 이미 부처이고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가르침이라고 한다”며 “그러므로 선사에게는 깨달음 이후의 닦음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 부처임을 자각한 부처로서 그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견성과 성불의 관계에서 성철 스님은 ‘견성즉불(견성이 곧 부처)’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행 선사는 ‘견성-성불-열반’이라는 3단계로 거론한다. 세 번 죽는 것으로도 표현되는 3단계 견성성불관에 대해 최 연구원은 이 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 죽음은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놓아 참나를 보는 길이고, 두 번째 죽음은 일체 중생과 자신을 둘로 보지 않는 둘이 아닌 도리이며, 세 번째 죽음은 너와 내가 있으면서도 둘 아니게 되는 나툼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다만 3단계는 고정된 수행 단계가 아니다. 대행 선사는 단계를 말하면서도 “깨달음에 있어서도 차원 없는 차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연구원은 “불은 생명이요 교는 생활임을 강조하는 대행 선사의 입장에서는 부처로 사는 것이 핵심이므로 견성과 성불 등으로 표현되는 수행 단계는 사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견성성불론은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의 틀을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대



묘공학술상 수상자 김두식 소장과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묘공학술장학 장학생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립했던 돈수마저 수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본래 부처의 현실 교화와 실천이 강조됨으로서 돈점논쟁에서 거론됐던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견성한 선지식들이 ‘오후보림’을 어떻게 보였고, 이는 현대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살핀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논문 ‘견성 이후 삶에 대한 선불교적 고찰-오후보림을 중심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조사선 전통 속에서 견성 이후의 삶을 네 흐름으로 정리했다. 먼저 혜능의 삼무(三無), 곧 무념·무상·무주를 통해 집착 없는 삶의 구조를 살폈다. 혜능 선사상의 핵심을 불성과 반야로 보고,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연결해 무주를 견성 이후 삶의 근본으로 제시했다.

마조 도일의 평상심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교수는 마조의 평상심을 단순한 수행 방법론이 아니라 선불교가 제시하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 삶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특별한 초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일상 속에서 도를 구현하는 삶이 평상심의 의미”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임제 의현의 무위진인 사상은 자유로운 주체성의 관점으로 정리됐다. 김 교수는 “무위진인을 어떠한 위치와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외부 권위나 관념에 종속되지 않는 살아 있는 주체성”으로 설명했다.

대혜 종고와 몽산 덕이의 간화선 전통에서는 오후보림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조됐다. 김 교수는 “간화선 수행자들은 견성을 하나의 완결된 상태로 이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깨달음을 삶 전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오후보림은 단순한 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고 삶 속에서 자신을 비워가는 과정이며, 견성 이후의 성숙 과정이자 자기 해체의 지속적 과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견성한 자의 삶은 자기 완결적 삶이 아니다”면서 “그는 세계와 타자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열어 간다. 바로 이러한 열린 관계성 속에서 지혜와 자비는 하나로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불교에서 견성 이후의 삶은 자유와 자비, 무주와 실천, 평상심과 책임성이 통합된 삶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삶의 구조는 오늘날 인간 존재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와 문명적 불안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의 ‘번뇌가 있는 중생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선종의 깨달음이 갖는 특수성-원환적 회귀를 중심으로’, 김호귀 동국대 교수의 ‘견성의 속성과 기능 고찰’이 발표됐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내빈들이 10주년을 맞은 연구원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는 축사에서 “한마음선원을 창건하신 대행 선사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혹독하게 엄습하는 고뇌를 체험하며 벼랑 끝 현자에서 한순간 반짝하는 자성의 광명을 체득하고 철통같은 신심으로 발심수행했다”며 “대행 선사의 언설로 던져진 언설에만 놀아나지 말고 진심과 골수에 사무쳐 펼쳐진 신심과 수행의 간절한 의미를 실천수행해 모든 대중이 환희용약하는 안양 정토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초기불교에서 대승 경론, 조사선의 전통을 거쳐 대행선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견성’이라는 본질을 꿰뚫는 소중한 법석”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학술적 성취를 넘어 사부대중 각자가 내 마음의 주인공을 발견하고 삶의 현장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0년, 8만7600시간이라는 여정 속에서 대행선연구원은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대행선의 사상적 지평을 넓혀왔고 학술지 〈한마음연구〉는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지로 선정돼 대행선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결실을 이뤘다”며 “이는 연구원만의 성과가 아니라 대행 선사를 기억하고 연구하며 실천해 오신 모든 대중의 원력과 정성이 함께 이룬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8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8회 묘공학술장학 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제8회 묘공학술상 수상자로는 최우수상은 없이 우수상에 김두식 불교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의 ‘대행 선사 관련 연구의 지식 지형과 시계열 변화-LDA 토픽모델링을 통한 학술 담론 분석’이 선정됐다. 제8회 묘공학술장학 증서 수여식에서는 박사과정 9명, 석사과정 3명 등 총 12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돼 장학증서를 받았다. 장학생들에게는 2026학년도 1·2학기 동안 장학금이 지급된다.


제 8 회

천 태

사 진

공모전

접수 8월 10일(월)~21일(금)

전시 11월 25일~30일, 한국미술관
(서울시 인사동길12 대일빌딩 한국미술관2층)

입상자발표 9월 중 개별 통보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8회 천태사진공모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공모 개요

| | |
|---|---|
| 주 제 | 소백산국립공원, 단양 지역 자연 풍경,<br>사찰 및 불교 정신을 담은작품, 천태종 관련 사진 우대. |
| 자 격 | 제한 없음 |
| 규 격 | 장별 3000픽셀, 해상도 300dpi, 용량 10MB 이상 JPEG파일.<br>출품작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것으로 한함.<br>작품의 파일명은 반드시 <작가명-작품명.jpg>로 할 것.<br>규격 파일형식 엄수, 규격 파일형식 미달은 심사 제외. |
| 출 품 수 | 1인 4점 이내. 타 공모전 출품 및 타인명 출품 심사 제외.<br>(추후 인지 시에 수상 취소) |
| 출품방법 |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가 기록된 파일을 첨부해<br>E메일로 접수. |
| 출 품 료 | 없음. |
| 접수기간 | 2026년 8월 10일(월) ~ 21일(금) |
| 접 수 처 | Email : cheontaecmb2@kakao.com<br>Tel: 02-723-1559 |

시상 내역

| 시 상 | 수 상 | 시 상 내 역 |
|---|---|---|
| 금 상 | 1명 | 상장 및 상금 500만 원 |
| 은 상 | 1명 |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
| 동 상 | 3명 | 상장 및 상금 각 100만 원 |
| 가 작 | 10명 | 상장 및 상금 각 30만 원 |
| 입 선 | 00명 | 상장 |

*입상자에게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입회 점수가 부여됩니다.

대한불교천태종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사진예술로
승화하여 21세기 기록 문화의 향상을 기하고자
‘제8회 천태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DSLR, 드론(촬영허가서 첨부)으로 촬영한 작품만 심사(허가관련 위법 사항은 작가 책임).
- 입상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사용권은 천태종에 있음.
- 작품의 초상권과 관련한 사항은 작가의 책임. (스님 초상 중심되는 사진 금지)
- 출품 후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 및 수신이 불가할 경우 주최 측에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불가.
- 디지털 합성 또는 과도한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진, A.I 작품은 심사 제외. 창작적 의도로 보정을 한 경우 원본도 첨부(심사 참조용).
- 수상작과 동일작을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수상할 경우 수상 취소. 상금반납은 물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입회가 유보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의 결정에 의함.

# 태국 대표 불교유산, 한국 첫 나들이

##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특별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에 전시되는 '걷는 부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국가 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태국 전역의 국립박물관에 산재된 문화유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6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을 개최한다. 태국 문화부 예술국과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다.

방콕국립박물관을 비롯한 태국 전역의 국립박물관 21개 기관이 참여해 조각, 회화, 공예 등 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239점을 선보인다. 특히 태국에서도 한자리에서 보기 어려운 대표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눈길을 끈다.

동남아시아 대륙 한가운데 자리한 태국은 예로부터 다양한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여러 문화가 들어오고 만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이 길을 따라 태국은 낯선 문화를 밀어내기보다 기꺼이 포용하고, 기존의 전통 위에 새것을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태국의 유연함과 포용력에 주목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오늘날, 이번 전시가 문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시는 관람객이 태국의 역사를 처음 접하더라도 따라가기 쉽도록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1부 '태국 이전의 태국'에서는 오늘날 태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타이족의 왕국이 등장하기 전,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했던 시기의 모습을 조명한다.

정교하게 장식한 청동기와 붉은 기하학무늬 토기에서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6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박물관 특별전시실1서 진행**
**태국 21개 국립박물관 참여**
**'걷는 부처' 등 239점 선봬**
**통도사 성보박물관 순회전도**
**유홍준 "문화적 다양성 확인"**

기술과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인도에서 온 장신구, 지중해 지역에서 온 로마식 램프 등은 당시 이 지역이 동서 교류의 중심지였음을 잘 보여준다.

2부 '타이 왕국의 영광'에서는 13세기 이후 타이족이 세운 수코타이(Sukhothai, 1238~1348), 란나(Lanna, 1292~1775), 아유타야(Ayutthaya, 1351~1767) 왕국의 고전 문화를 종교·무역·왕권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본다.

수코타이 시대 태국의 가장 독창적인 예술품이자 태국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걷는 부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부처의 모습과 다른, 우아한 자세로 걸어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특히 눈길을 끈다.

타이 왕국은 활발한 무역을 바탕으로 더욱 넓은 세계와 교류했다. 수코타이를 대표하는 상칼록 도자기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동아시아로 수출됐으며, 아유타야의 수도 아유타야는 17세기에 이미 동서양 여러 나라의 상인과 외국인이 모여 사는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종교와 무역을 바탕으로 왕실은 절대적인 권력과 부를 축적했으며, 불탑에 봉헌된 왕의 상징물과 왕관을 쓰고 왕의 장신구를 착용한 불상 '보관불'은 왕의 권위를 잘 보여준다.

3부 '왕실과 불교의 나라'에서는 178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라따나꼬신(방콕) 왕조의 미술을 왕실과 불교라는 두 축으로 조명한다. 화려한 왕실 공예품과 태국인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불교문화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태국의 모습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에메랄드사원의 옛 중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왕실은 동남아시아 최고의 성물로 꼽히는 에메랄드 불상을 왕궁 내에 모시고, 불교 경전과 승단을 정비하는 등 불교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를 통해 왕실은 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강화했으며, 동시에 문화와 예술 부흥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 걷는 부처·사위성 신변·불족적…낯선데 재밌다

## 노남희 학예연구사가 소개하는 주요 전시유물들

**도리천 강하 담은 '걷는 부처'**
**중생에게 나아가는 의미 확대**
**모공서 부처 태어나는 관음상**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도상화해**
**'하리하라상', 포용과 습합 보여**

국립중앙박물관이 선보이는 '어메이징 타일랜드' 특별전은 태국 불교미술의 독자성과 동남아시아 문화의 종교적 습합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다. 전시에 출품된 유물들은 단순한 조형미를 넘어, 상좌부 불교의 신앙 세계와 크메르·수코타이로 이어지는 역사적 층위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 기획을 담당한 노남희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는 몇 명 안되는 동남아 불교미술사 전문가다. 그에게 이번 전시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유물은 '걷는 부처'다. 한국 불교미술이 좌상 중심으로 전개된 것과 달리, 태국 수코타이 시대에는 한 발을 내딛는 듯한 유려한 입상의 부처가 예경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노 연구사는 이 도상의 근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리천 강하 설화에서 찾았다. 도리천 강하 설화는 부처가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라 석 달 동안 설법한 뒤, 금·은·수정 세 보배 계단을 따라 범천과 제석천을 거느리고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다.

이 도상은 단순히 '내려오는 부처'에 머물지 않는다. 노 학예연구사는 "독립된 예경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수코타이 시대이며, 이후 부처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설법을 펼치는 모습으로 의미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또한 걷는 자세는 사념처 수행 가운데 몸의 자세를 관찰하는 수행 전통, 나아가 부처의 발자국을 숭배하는 불족적 신앙과도 연결된다는 게 노 학예연구사의 설명이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몸에서 무수한 부처를 탄생시키는 관음보살'은 한국 관람객에게 낯선 도상이다. 한국의 관음보살상이 대체로 자비롭고 여성적인 인상으로 조형되는 것과 달리,



'몸에서 무수한 부처를 탄생시키는 관음보살'.



'하리하라상'.



'사위성에서 일어난 기적을 묘사한 비석'.

전시된 크메르 계열 관음보살상은 당당하고 강건한 신체감을 보인다. 특히 관음보살의 몸 곳곳에서 부처가 태어나는 듯한 도상은 한국 불교미술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예다.

노 연구사는 이 관음보살상의 경전적 배경으로 〈불설대승장엄보왕경〉을 들었다. 이 경전은 '옴마니반메훔'으로 알려진 육자진언이 처음 등장하는 경전으로, 관음보살의 구제 능력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해 설명한다. 관음보살의 모공 하나하나에서 부처가 태어나고, 그 안에 온 우주가 깃들어 있다는 경전의 세계관이 조각으로 구현된 셈이다. 여기에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이 투영돼 있어, 종교적 상징과 정치적 권위가 결합된 독특한 유물로 평가된다.

힌두교와 불교가 교차하는 동남아시아 종교문화의 단면은 '하리하라상'에서 확인된다. 한 몸의 절반은 비슈누, 다른 절반은 시바로 표현되는 이 도상은 모든 신성이 하나의 근원에서 다른 모습으로 발현된다는 힌두교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노 연구사는 "수코타이는 상좌부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전부터 자리한 크메르 문화와 브라만 전통을 배척하지 않았다"며 "힌두교 사원을 세우고 브라만들이 의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기록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불족적 역시 태국불교를 이해하는 핵심 성보다. 노 연구사는 "불족적 숭배가 스리랑카에서 크게 발전했고, 수코타이가 스리랑카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리수 숭배와 함께 전래됐다"고 설명했다. 부처님의 발자국은 '부처가 이곳에 왔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취다. 역사적 석가모니의 생애와 존재에 집중하는 상좌부 불교 전통에서 불족적은 부처의 현존을 상징하는 강력한 매개가 됐다.

고대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사왓티)에서 부처님이 외도의 도전자들 앞에서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보여 불교의 위대함을 입증하고 대중을 교화한 '사위성 신변(神變)'을 도상화한 부조상도 노 연구사는 주목해야 하는 유물로 꼽았다.

씨앗에서 순식간에 나무가 자라고, 그 위로 다양한 자세의 화불이 나타나며, 이를 본 외도들이 굴복하는 이야기가 부조 안에 촘촘하게 담긴 부조상을 두고 노 연구사는 "동남아시아 불교미술뿐 아니라 불교미술사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제 11 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접 수
9.16(수) ~ 17(목)
전 시
11.25(수) ~ 30(월)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 부 문 | 규 격 | 유 의 사 항 |
|---|---|---|
| 전통불화 | 200호 미만<br>가로×세로 합 400cm 이하<br>(세로 210cm 이하) | 표구(액자, 판넬, 족자)한 완성작 접수 |
| 현대불화 | | |
| 조각 공예 | 높이 210cm 미만<br>가로×세로 합 400cm 이하<br>무게 500kg 미만 | 조립한 완성품으로 제출 |
| 민화 | 200호 미만<br>가로×세로 합 400cm 이하<br>(세로 210cm 이하) | 표구(액자, 판넬, 족자)한 완성작 접수 |

※ 자격 제한 없음 ※ 1인 3점 이하 ※ 액자에 유리 금지
※ 출품료 없음 ※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시상 내역

| 시 상 | 수 상 | 시 상 내 역 | 비 고 |
|---|---|---|---|
|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1명 | 상장 및 상금 2,000만원 | 종단 귀속 |
| 최 우 수 상 (국가유산청장상) | 1명 | 상장 및 상금 700만원 | |
| 우 수 상 | 4명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 |
| 장 려 상 | 4명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
| 특 선 | 약간명 | 상장 및 상품 | |
| 입 선 | 약간명 | 상장 | |
| 특 별 상 | | 상장 및 기념패 | |

제출서류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원서 배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7월부터 다운로드

작품 및 응시원서 접수
접수 기간 : 9월 16일(수) ~ 17일(목)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723-1559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1월 25일~30일,
한국미술관(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일빌딩 2층)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 “한암·지암, 월정사·한국불교 구한 선지식”

## 자현 스님, 오대산 특별 학술세미나서 강조

**무리한 투자로 거대 부채 발생**
**한암, 월정사 이거해 부채 정리**
**조선불교, 박문사 귀속 움직임에**
**조선불교조계종 창종…야욕 분쇄**
**제27대 한국불교학회장 취임식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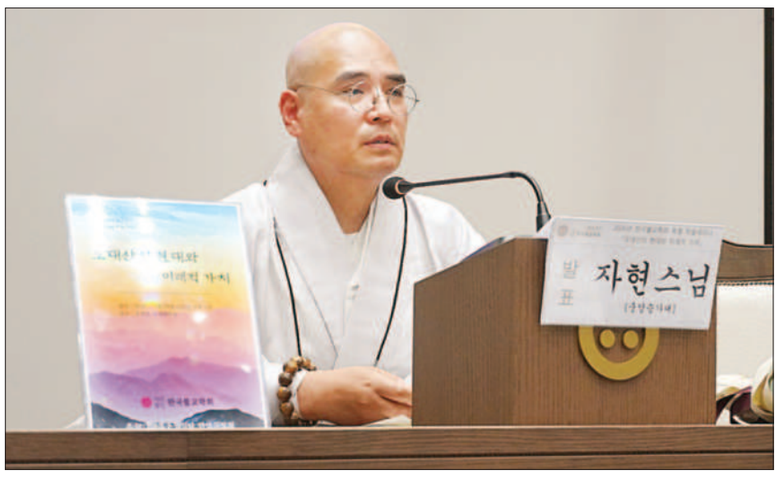
“한암과 지암은 부채 문제에 빠진 오대산과 월정사를 구했고, 다시금 일제에 예속될 뻔한 한국불교를 구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한국불교학회장)은 6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학회 주최로 열린 오대산 특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한암과 지암의 오대산 재정립과 조계종의 창종’을 통해 한암 스님과 지암 스님이 어떻게 월정사와 한국불교를 지켜냈는지를 조명했다.

자현 스님에 따르면 1920년대 월정사 주지인 홍보룡과 와세다 대학 출신 용창은은 강릉 포교당을 건립하고 광동권업주식회사를 세우는데, 회사 쪽에 무리한 투자로 인해 30만엔이라는 막대한 부채가 생기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인물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복역하고 월정사에 주석하고 있던 지암 스님이다.

지암 스님은 사채정리위원이 돼 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오대산 월정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봉은사 판전 조실로 있던 한암 스님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에 한암 스님은 1926년 오대산으로 이거해 월정사 조실이 되고 1929년 정골탑묘찬양회를 구성해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 찬양회 사업을 통해 월정사는 1936년 9월 부채를 전부 상환하기에 이른다.

자현 스님은 “찬양회 구상은 한암 스님이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실무를 지암 스님이 주도했다”면서 “부채 문제 해결은 자칫 매각될 위기에 있던 월정사를 구한 큰 업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한국불교학회장)은 6월 19일 한국불교학회 오대산 특별 학술세미나에서 ‘한암과 지암의 오대산 재정립과 조계종의 창종’을 발표했다.

1936년에는 일제가 조선불교 전체를 이토 히로부미 추모사찰인 남산 박문사에 귀속시키려는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를 전해 들은 지암 스님은 1937년 2월 31본사 의장이 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한암 스님의 지시로 일제의 통합 계획을 분쇄하기 위해 조선불교조계종이 창종되며 총본산으로 태고사(현 조계사)가 건립된다. 초대 종정에는 한암 스님이 추대됐으며 종무총장(현 총무원장)에는 지암 스님이 임명됐다.

자현 스님은 “조선불교조계종은 해방 이후 정화 과정에서 한국불교조계종으로 바뀌며, 이 명칭이 정화 이후인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으로 연결된다”면서 “조계종의 명칭은 한암 스님과 지암 스님의 일제 야욕을 분쇄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돼 현대에 이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선지식의 업적이 일제강점기를 넘어 오늘날까지 유효한 탁원한 위법망구의 노력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상찬했다.

‘오대산의 현대와 미래의 가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선불교조계종 초대종정으로서 한암 중원의 종단 운영관(박진영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월정사 강원과 조지훈의 돌의 미학’(김경집 동국대 연구교수) △‘만화의 오대산 중흥과 정신적 배경(윤창화 민족사 대표)’ △‘오대산 불교 기록화 사업과 정념(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오대산 월정사의 불교적 지향과 브랜드 가치(이재수 동국대 특임교수)’ 등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학술세미나에 앞서 제27대 한국불교학회장으로 연임된 자현 스님의 취임식도 진행됐다.

자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학회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스님은 “학회의 제도와 운영 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비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학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학술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 개최되는 특별 학술세미나는 이러한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며 “이번 세미나가 전통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세미나장을 찾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자현 스님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사부대중의 성원에 힘입어서 학회장으로 연임한 만큼 불교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학술세미나를 통해 전환의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원력이 다시 한 번 월정사에 생겨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식에서는 한국불교학회 발전을 위한 기금 전달이 이어졌다. 이날 자현 스님은 1000만원의 기금을 학회에 전달했으며 혜묵·승우 스님이 200만원, 아랑주 보살이 500만원,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소이회가 500만원, 영법심(울산 영평선원) 보살 1000만원을 각각 학회에 기부했다.

---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㊻ 사추지견(捨錐至見)

# 송곳을 버려야 하늘이 보인다

捨 錐 至 見

〈능엄경〉 제2권에는 인간의 편견과 오만을 일깨우는 인상적인 비유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작은 송곳을 손에 쥔 채, 그 끝에 뚫린 가느다란 구멍을 눈에 바짝 대고 하늘을 바라본다. 좁은 구멍너머로 보이는 하늘만 오래 들여다보던 그는 마침내 착각에 빠진다.

“아, 하늘이란 송곳 구멍처럼 작고 둥근 것이구나!”

부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사추지견(捨錐至見)’이라 말씀하신다. 손에 쥔 송곳을 과감하게 던져 버려야[捨錐], 비로소 가없는 하늘 전체를 온전히 볼 수 있다[至見]는 뜻이다.

우리 또한 저마다 삶의 궤적 속에서 벼려낸 ‘송곳 구멍’ 하나씩을 손에 쥔 채 살아간다.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익숙한 책과 매체, 몸담아온 종교와 지역, 그리고 오랫동안 굳어진 가치관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그 좁은 시야에 비친 세상을 전부라 여기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곤 한다.

이는 동양고전에서 말하는 ‘정저지와(井底之蛙)’와 다르지 않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속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다. 서양 철학자 베이컨의 ‘동굴의 우상’과도 통하고,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확증 편향’의 실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타인의 삶을 마주하면 이해하려 하기보다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단정하며 쉽게 선을 긋고 만다.

인간이 지닌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걸작 ‘라쇼몽’이다. 영화는 숲속에서 벌어진 한 사내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다룬다. 흥미로운 것은 사건을 둘러싼 증언들이 서로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이다. 도적과 아내, 심지어 무당의 입을 빌려 나타난 죽은 사내까지 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본 것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일부러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자의 입장과 경험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사건을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이 본 파편을 진실의 전부라고 믿는다. 영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 인식의 근원적 한계를 날카롭게 드러낸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저마다의 ‘라쇼몽’을 찍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각자의 송곳 구멍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자신이 본 조각만이 진실이라고 고집하는 사이, 광활한 하늘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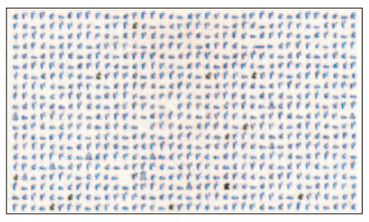
그러니 이제 내가 그토록 옳다고 믿으며 움켜쥐고 있던 신념의 송곳을 잠시 내려놓아 보자. 잠시 스마트폰을 끄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자. 좁은 경험의 구멍을 통해 세상을 판단하던 습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내 생각의 벽에 가려 보이지 않던 타인의 아픔이 보이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넓은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

# 본래면목 찾는 구도 여정, 화폭에 담다

**부산 ‘O갤러리’ 개관 기념**
**박청용 개인전 ‘眞覺’ 개최**


박청용 작가의 작품 ‘기도하는 사람들(2026)’.

수행과 성찰로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박청용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부산 해운대 O갤러리(대표 오지원)는 “개관을 기념해 수행과 자아성찰을 주제로 작업해 온 박청용 작가의 개인전 ‘진각(眞覺)’을 6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7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가로, 오랜 시간 수행과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과 마음의 근원을 탐구해 왔다.

‘진각(眞覺)’은 참된 깨달음, 즉 본래의 마음을 자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외부의 구원이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의존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수행을 통해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을 작품으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에는 장엄 시리즈를 비롯한 대표 연작 및 신작 20여 점을 선보인다. ‘장엄 시리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시간의 깊이와 ‘백만 번의 기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대표 연작이다.

O갤러리는 “박 작가의 작품 속에는 불교의 공(空), 무아(無我), 자력수행(自力修行)의 정신이 현대적 조형언어로 구현돼 있다”면서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 지혜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만남!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불교적 ‘깨달음’과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철학적 모색!
세스 주이호 세갈 지음, 박찬국 옮김/신국판/312쪽/값 22,000원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23개의 주제어, 즉 ‘지혜’, ‘인연’, ‘불성’, ‘인과’, ‘공덕’, ‘보살행’ 등의 개념으로 풀어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 부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함현준 지음/신국판/416쪽/값 25,000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과학!
**영성과 아동발달**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이다. 따라서 과학으로 입증된 영성이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삶의 회복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이다.
리사 밀러 지음, 이혜숙 · 이선모 옮김/신국판/528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4~6/30

###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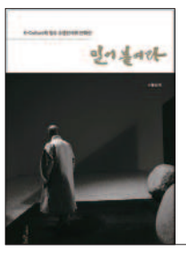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내 안에 삶의 나침반이 있다 | 법상 | 아름다운인연 | 6 |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 토니페르난도 | 월마 |
| 2 |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 | 법상 | 조계종출판사 | 7 | 하나인 도리를 아느냐(관응 큰스님 법어집) | 관응 | 새벽숲 |
| 3 |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 | 법상/용정운 | 조계종출판사 | 8 |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이에게 | 편집부 | 선문출판사 |
| 4 | 우리말 독송 지장경 | 원순 | 법공양 | 9 |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 고닐 | 북이랑 |
| 5 | 법화경 | 김현준 | 효림 | 10 | 반야심경과 마음공부(2017개정판) | 법상 | 무한 |

###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요가 디피카 | 아헹가/현천 역 | 선요가 | 6 | 중관학 특강 | 김성철 | 오타쿠 |
| 2 |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 초펠 편역/게시 소남 | 하늘호수 | 7 |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 일현 함현준 | 운주사 |
| 3 | 고요함의 지혜 | 에크하르트톨레 | 김영사 | 8 | 금강경 핵심 강의 | 우학스님 | 좋은인연 |
| 4 | 밀어 붙여라 | 수불 | 해조음 | 9 |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 각묵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 5 | 십우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 | 인경스님 | 명상상담연구원 | 10 | 성철스님 백일법문 (상) | 성철 스님 지음 | 장경각 |

# 수불 스님이 통견한 간화선의 요체



밀어 붙여라
수불 스님
도서출판 해조음
1만8000원

### 한국 간화선 수행 지침서
### 연재·강연문·인터뷰 수록
###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최근 간화선의 원리부터 대중화 비전 등을 아우르는 안내서 '밀어 붙여라'를 출간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이심전심으로 부촉한 법등은 서천 28대를 거쳐 달마 대사에 이르렀다. 선종의 창시자가 된 달마 대사가 전한 법은 결국 선종 전체의 종지가 됐다. 한국의 조계종은 바로 이 종지를 이어 받고 있으며, 오늘날 조계종은 육조 혜능의 조계선법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간화선(看話禪)을 정통 수행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선불교의 정수 간화선의 핵심을 대중이 알기 쉽게 짚어낸 신간이 나왔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최근 불교신문에 연재했던 글과 강연문, 인터뷰를 한데 엮은 책 〈밀어 붙여라〉를 펴냈다.

책은 간화선의 원리를 비롯해 의심이 자라 의단이 타파될 때의 극적인 변화까지 아우른다. 자칫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간결한 문장으로 풀어 가독성을 높였다. 본문은 총 7부로 구성됐다. 1~6부에서는 수행과 선, 간화선, 화두, 의정, 한국불교와 간화선의 사명 등 핵심 주제를 다룬다. 마지막 7부에서는 강연문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 간화선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수불 스님은 마음을 다루는 참선 중에서도 간화선을 '깨달음에 이르는 정확하고 쉽고 빠른 지름길', '최첨단 마음사용법'으로 꼽는다. 간화선이야말로 가장 예리하고 직접적으로 마음의 뿌리를 겨누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명상 열풍을 한국불교 중흥의 기회로 보면서도, 현대 명상의 한계를 지적한다. 즉,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유위법(有爲法)'의 명상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상(相)을 깨고 단박에 마음의 실상을 보게 하는 최상승 '무위법(無爲法)'이자 한국 전통 수행인 '간화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더불어 스님은 명상 수행자들을 잠재적인 간화선 수행자들로 바라본다. 세계적으로 웰빙과 힐링의 유행이 지나가면, 마침내 자성불을 밝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간화선 대중화의 시절인연이 열릴 것이라며 이를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현대인일수록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불교로 나갈 것을 주문한다. 불교를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치는 수행으로 깨달음의 눈을 떠야만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깨달음은 '잘 생각한 끝에 얻는 결론'이 아니라 '생각이 멈추는 자리'에서 열리는 직접 체험이라며, 이 체험으로 이끄는 간화선의 핵심은 바로 '의심'임을 밝힌다.

또 수불 스님은 간화선이 공안 자체를 외우는 수행이 아니라 공안에서 비롯된 의심, 즉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법이라고 역설한다. 역대 조사들은 수행자가 근본에 대해 의심하도록 이끌었고, 그 의심이 극에 달한 자리에서 깨달음이 열리도록 했다. 의심하고 의심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곳에 이르면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정신적 장벽이 무너지고 본래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 화두 공부는 단지 의심을 잠시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뿌리를 뽑는 공부인 것이다.

이를 위해 수불 스님은 스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혼자 힘으로는 간화선 수행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간절한 발심으로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는 당부다. 선지식이 학인을 인도해 눈앞의 정신적인 벽을 뚫고 나가도록 돕는 과정이 곧 간화선의 올바른 길이라고 말한다.

스님이 강조한 수행의 자세는 책의 제목인 '밀어 붙여라'에 응축돼 있다. 화두가 잡히고 살아 있는 의심[활구]이 시작되면, 온갖 장애와 정신적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뒤 돌아보지 않은 채 깨달음을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당부다. 이 치열한 구도(求道)의 정신은 책의 첫 장인 프롤로그에서부터 나타난다. 스님은 "생각이 멈추는 자리에서 화두가 시작된다. 한번 화두가 잡들어지면, 앞뒤 돌아보지 말고 밀어 붙여야 한다"고 설한다. 또 스님은 '아무 일도 없었음을 알게 된다'는 제하의 에필로그를 통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독자에게 또 다른 화두를 던진다.

**"간화선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가장 단순하다. 문제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 답을 찾겠다는 간절함이 극에 달할 때, 비로소 그 간절함마저 무너지면서 길이 열린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토록 막혀 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 그때 알게 된다.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줄곧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았을 뿐이라는 것을. … 사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이 곧 살아가는 일이다.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란 질문이 살아 있는 한 길은 시작된 것이다."**

**수불 스님은**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범어사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제방 선원에서 10년간 수선 안거를 성만했다.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하고 2001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을 설립해 국내외에서 '간화선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부산, 서울의 안국선원과 마곡사 및 백담사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중국, 뉴질랜드, 인도, 일본 등 국내외에서 7박 8일간의 '간화선 집중수행'을 300여 회 개설해, 전 세계 3만여 명에게 간화선을 알렸다. 사단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 부산불교방송 사장 등을 지냈다.

# 동심으로 전하는 부처님 마음



자전거 날다
글 · 그림 한산 스님
그봄출판사
1만5000원



오징어의 초대
글 · 그림 무여 스님
그봄출판사
1만5000원

### 한산 · 무여 스님 그림동화책
### 종교색 빼고 불교 지혜 더해

한날한시 동반 출가로 주목받았던 자매 스님이 나란히 그림동화책을 펴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친자매인 한산 스님과 무여 스님. 두 스님이 각각 선보인 동화책들은 종교적 색채 없이 편안하게 읽히지만 숨은 의미를 전해 들으면 불교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묘미가 있다.

언니 **한산 스님의 〈자전거 날다〉**는 도전과 실패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화다. 아이들에게는 도전하는 기쁨을, 어른들에게는 잊고 지낸 첫 순간의 설렘을 선사한다.

이야기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자전거가 생긴 아이의 설렘으로 시작한다. 아이가 용기를 내어 페달을 밟는 순간 몸은 하늘을 날듯 가벼워진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첫 자전거 나들이는 예상치 못한 낙상으로 이어진다. 계단에서 시작돼 바닥으로 쿵 고꾸라진 것이다. 그래도 아이는 넘어지며 생긴 흉터를 '세상에 하나뿐인 내 별'로 받아들인다.

아이의 상처를 온전히 마주하고 다정하게 품어주는 태도는 불교의 '자기 자비'와 맞닿아 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비(悲)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투영해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것이다.

이 책은 새로운 도전이 두려운 아이나 작은 실수에 낙담한 이들에게 상처 역시 빛나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응원을 건넨다. 어린이 법회나 학교, 가정에서 스토리텔링 교재로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실패를 긍정하고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생 **무여 스님의 〈오징어의 초대〉**는 평범한 순간이 특별한 기억으로 변하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낸 그림책이다.

책은 1990년대 어느 아파트의 저녁 풍경을 배경으로 한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아빠가 구워온 마른 오징어를 세 자매가 나눠 먹는 순간, 주인공 주완이는 오징어와 함께 푸르고 환상적인 바다 세계로 탐험을 떠나게 된다.

어린이에게는 바다 탐험의 상상을, 어른에게는 잊고 지낸 동심과 가족의 온기를 선물하는 이 동화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다. 세 자매가 작은 오징어를 나누는 모습은 '보시(나눔)의 행복'을, 평범한 먹거리인 오징어를 소중한 친구로 대하는 과정은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식탁 위 음식을 온 우주의 인연으로 바라보는 '연기(緣起) 사상'과 생명에 감사하는 현대적 의미의 '불살생(不殺生) 정신'까지 자연스럽게 일깨운다.

이 책은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배워야 할 어린이는 물론, 이를 지도하는 사찰과 학교, 가정의 교육 효과를 한층 높여줄 것이다.

두 책의 특징은 불교 교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어린이 눈높이의 글과 그림 속에 녹여냈다는 점이다.

덕분에 이웃 종교인이나 일반 독자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교적 관점을 접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하기 좋다.

배희정 기자


불교 공부는 어렵지 않다, 원영 스님과 함께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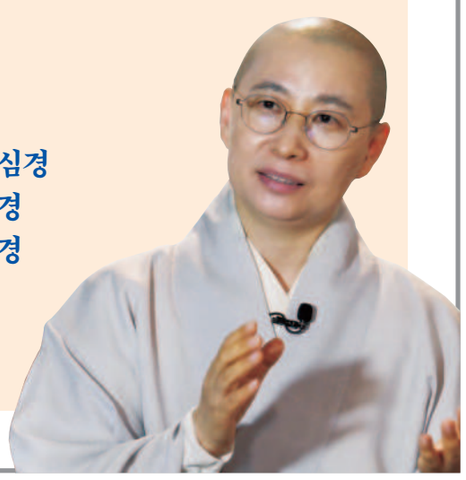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연기 등
주요 교리부터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까지
불교계 대표 베스트셀러 4종과
한정 부록 '불교 공부 노트'를
소장용 케이스에 하나로 담았다!

불교가 처음인 사람도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불교 공부 일타강사 원영 스님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세트!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세트, 전 4권)
원영 지음 | 72,000원

【구성】
•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 [부록] 불교 공부 노트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

# 공동체 화합 위한 엄격한 자정 시스템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⑥ 포살과 자자



수행자들은 자신의 수행과 생활을 돌아보며 참회를 통해 청정함을 유지한다. 승가의 대표적인 공동체 참회 행사로는 '포살'과 '자자'가 있다. 사진은 조계종 직할교구가 6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 하안거 첫 포살법회.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atha kho bhagavā sāyaṇhasamayaṃ paṭisallānā vuṭṭhito etasmiṃ nidāne etasmiṃ pakaraṇe dhammikathaṃ katvā bhikkhū āmantesi : idha mayhaṃ bhikkhave rahogatassa paṭisallīnassa evaṃ cetaso parivitakko udapādi : yaṃ nūnāhaṃ yāni mayā bhikkhūnaṃ paññattāni sikkhāpadāni tāni nesaṃ pātimokkhuddesaṃ anujāneyyaṃ, so nesaṃ bhavissati uposathakamman ti. anujānāmi bhikkhave pātimokkhaṃ uddisituṃ.

**爾時世尊. 從靜處出. 以此因緣集諸比丘告言. 我向者在靜處思惟. 心念言. 我與諸比丘結戒. 及說波羅提木叉戒. 有信心新受戒比丘. 未得聞戒. 不知當云何學戒. 復自念言. 我今寧可聽諸比丘集在一處說波羅提木叉. 以是故. 聽諸比丘共集在一處說波羅提木叉戒. 作如是說.**

**세존께서는 명상에서 깨어나 그 인연을 기회로 삼아 법문을 하고 비구들에게 일렀다. '비구들이여, 나는 홀로 떨어져 명상하다가 마음속에 이와 같이 '나는 비구들을 위하여 학계를 시설하였는데,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제목차로서 송출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것이 그들의 포살갈마가 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비구들이여 나는 바라제목차로서 송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 마하박가 포살건도

우리는 왜 출가자나 성직자의 삶을 존경하는가? 그 존경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 세속을 떠난 출가자의 삶은 재가신자들의 생활 방식과 확연히 다르기에 존경심을 자아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출가자는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간다. 그런 까닭에 재가신자는 출가자를 고귀한 수행자로 바라보며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출가자는 검소한 삶을 추구하며, 수행자로서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출가자의 검소한 삶은 '4의지(四依止)'라는 생활 방식에서 잘 나타난다. 4의지는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를 의미한다. 의복은 분소의(버려진 천으로 만든 옷)를, 음식은 탁발을, 주거는 수하좌(나무 아래 잠자리)를 통함으로써 출가자는 기본 생활을 영위한다. 즉, 4의지는 무소유의 삶을 뜻하며 청렴한 출가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4의지가 출가자의 검소한 생활을 대변한다면,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붓다가 살던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거나 불을 섬김으로써 스스로 정화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붓다는 이러한 외적 행위가 내면의 마음까지 정화하지는 못한다고 설했다. 올바르고 청정한 삶의 방식은 수행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은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과 더불어, 자신의 수행과 생활을 돌아보며 청정함을 유지한다. 이처럼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며 악한 짓을 저질렀거나 게으름 피운 것을 반성하는 행위를 '참회(懺悔)'라고 한다. 참회 방법 중에서도 승가의 대표적인 공동체 반성 행사로 '포살'과 '자자'가 있다.

포살(布薩, uposatha)은 붓다 당시 마가다국 빔비사라 왕의 권유로 불교에 수용됐다. 원래 포살은 힌두교의 정진일에서 유래했다. 힌두교에서는 포살일에 단식이나 걸식을 하며 수행에 정진했는데, 이것이 불교에 수용되면서 불교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정착됐다. 포살일이 되면 승가 구성원들이 모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āṭimokkha)'를 함께 합송한다. 바라제목차는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 조문을 모은 것으로, 이를 범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의 조문을 받아 지키는데, 붓다가 직접 제정하여 조문을 범한 출가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웃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출가자가 조문을 범하게 되면 재가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지만, 수행자 역시 실수를 할 수 있기에 참회를 통해 청정성을 회복한다. 그 구체적인 참회의 과정이 바로 포살이다.

> 어긴 계율 반성해 청정 회복하는 포살
> 안거 중 지은 잘못 서로 참회하는 자자
> 허물 참괴와 지적 수용은 승가 지탱 힘
> 지계 정신과 참회, 세간 맑히는 등불

포살은 15일마다 행해지는 의식으로, 법납에 상관없이 모든 승가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특히 포살에 참석하기 전에 지난 행동을 되돌아보고 계율을 어긴 일이 있다면 미리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 다만, 기억하지 못했던 잘못이 포살 중에 생각난다면 동료 출가자에게 조용히 잘못을 드러내고 참회하면 된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참회한 출가자는 포살을 통해 비로소 '청정한 비구'임을 확인받는다.

saṃghaṃ āvuso pavāremi diṭṭhena vā sutena vā parisaṅkāya vā, vadantu maṃ āyasmanto anukampaṃ upādāya, passanto paṭikarissāmi.

**大德眾僧今日自恣. 我某甲比丘亦自恣. 若見聞疑罪. 大德長老. 哀愍故語我. 我若見罪. 當如法懺悔. 如是第二第三說.**

**벗들이여, 저는 세 가지 경우 즉, 보인 것이나 들린 것이나 의심된 것을 통해서 승가에서 자자를 행하려고 합니다. 존자들께서는 저를 애민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인지하면 참회하겠습니다.** – 마하박가 자자건도

자자(自恣, pavāraṇā)는 안거[集中修行]가 끝나는 해제 전날, 안거 기간 동안 함께 지낸 수행승들이 모여 치르는 의식이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율을 어겼거나 대중 스님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지 되돌아보며 서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리다. 안거 해제 전날에만 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포살과 같은 맥락의 의미를 지닌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포살과 자자는 승가의 다양한 제도 가운데, 공동체 수행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화합을 이뤄가는 과정이자 수행자의 청정함을 증명하는 불교 의례다. 우리는 포살과 자자를 통해 수행자의 청정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비구의 성스러움과 승가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많은 대중이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죄를 지었으면 반성하고 참회하게 함으로써 승가를 청정하게 전승하는 기능을 한다. 포살은 비구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행사이기도 하다. 포살을 통해 비구는 스스로를 반성하며, 자신이 비구이자 승가의 일원임을 깊이 자각한다.

출가하여 수계(授戒)를 받았다면 계율을 실천하고 범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계를 범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참회와 반성이다.

붓다는 스스로 청정하다는 이유로 포살에 불참하려 했던 장로 비구를 경책하며, 오히려 윗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설했다. 이렇듯 포살은 출가자의 청정함을 통해 불교 공동체가 지닌 뛰어난 자정 작용을 보여주는 의례다.

출가는 바른 신심을 내어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하겠다는 서원이기에,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출가자의 이러한 지계(持戒) 정신과 끊임없는 참회와 반성이야말로 재가신자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는 진짜 이유일 것이다.

이처럼 출가자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결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존재여서가 아니다. 허물이 생겼을 때 이를 감추지 않고, 포살과 자자라는 엄격한 자정(自淨)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며 끊임없이 청정함을 회복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허물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직함, 그리고 도반의 따끔한 지적을 자비로 수용하는 겸손함이야말로 승가를 지탱하는 가장 성스러운 힘이다.

오늘날 포살과 자자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남의 탓만 하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를 엄격히 되돌아보는 '포살'과 타인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자'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시사점을 던진다. 출가자의 지계(持戒) 정신과 끊임없는 참회는 단순히 불교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율을 넘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간을 맑히는 청량한 등불이 되어 주기에 우리는 여전히 수행자의 삶을 존경하는 것이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화엄의 세계관으로 읽는 AI시대 문명 철학서
"수행은 법당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완성된다"
"불교가 시대와 만나지 않으면 도태된다"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퇴우 정념 지음 | 344쪽 | 18,500원
퇴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 2026년 6월 19일 오후 5시. 서울 앰베서더 풀만 호텔 (장충로 2가) 그랜드볼룸
민족사



조계사 법등 모임이 올해 6월 만발공양간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촬영한 단체사진. 사진 제공=조계사



봉은사 기초학당 교육생들이 사찰음식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봉은사

# 늘어나는 새신도…사찰도 신행 정착 지원 강화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 2. 어서오세요 새신도님

하성미 · 김내영 기자

'힙(Hip) 불교' 열풍과 선명상 확산으로 사찰을 찾는 새신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각 사찰도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는 이들이 낯섦을 덜고 자연스럽게 발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와 공동체 활동,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진정한 불자'로 성장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최근 새신도 증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본교육부터 신행 모임, 봉사활동까지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고 새신도의 안정적인 신행 활동을 지원한다.

조계사는 매년 3·6·9·12월 불교기본교육을 운영하며 새신도들에게 불교 기초 교리와 신행 활동 등을 안내한다. 직장인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오후·야간·토요반으로 나눠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새신도 증가세에 맞춰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교육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조계사에 따르면 2021년 불교기본교육 신청자는 487명이며 이 가운데 460명이 수료했다. 2022년에는 신청자가 769명으로 크게 늘었고 701명이 과정을 마쳤다. 2023년에는 958명이 신청해 841명이 수료했으며 2024년에 830명, 2025년에 901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58명이 참여해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교육 수료가 단발성 경험에 끝나지 않도록 2024년 3월부터는 새신도 신행 프로그램인 '법등 모임'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교육생 10명 안팎으로 조를 편성해 법등장을 두고 담임 스님을 배정,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법등 모임에서는 〈천수경〉 독송을 비롯해 도반들과의 교류, 공양간 봉사, 불교문화유산 답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월 1회 경기권 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불교문화유산 답사에서는 문화해설사에게 사찰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배우고, 전각에서 함께 기도와 축원을 올리며 불교문화를 몸소 체험하도록 돕고 있다. 사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불교가 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신도들의 호응도 높다. 조계사가 올해 4월 기본교육 수료생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등 모임 참여와 신도단체 활동 연관성' 설문조사에서 〈천수경〉 독송과 도반 교류,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이 각각 20% 안팎의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꼽혔다.

새신도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담부서인 '신행국'도 신설했다. 신행국은 법등 모임 운영을 전담하며 기본교육 이후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경전반 등 심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새신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법등 모임'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자체 굿즈를 제작해 봉사와 모임 등에 꾸준히 참여한 신도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초심자도 쉽게 사찰을 둘러볼 수 있도록 '조계사 지도형 참배 가이드'와 '포켓용 천수경 기도집'도 새롭게 제작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올해 2월 관음전 앞에 조성된 '초심자 정원'이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 공간은 불교 입문자를 위한 오프라인 상담소다. 조계사에서 15~30년 동안 봉사해 온 불자들로 구성된 자비신행 협력위원회와 법등 모임 봉사자 등 27명이 매일 교대하며 참배 방법부터 신행생활, 교육 프로그램, 신도단체 가입까지 새신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다.

운영 4개월여 만에 젊은 층의 발길도 눈에 띄게 늘었다. 혜안수 초심자 정원 운영위원은 "최근에는 선명상과 봉사활동, 청년회 가입 등을 문의하는 젊은 방문객이 많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초심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차근차근 설명하며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양질의 신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신도가 자연스럽게 불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조계사 신행국장 혜원 스님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한 명의 새신도가 불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사찰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와 접점은 넓혀가되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분이 이 도량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조성된 조계사 '초심자 정원'.

**조계사, '초심자 정원' 연중무휴**
**새신도 전담부서 '신행국' 신설**

**봉은사, 기초학당 4개월로 확대**
**사찰음식 등 체험 프로그램 '인기'**

**지역 사찰도 멘토링 · 단계별 교육**
**신심 증장 · 소속감 형성에 최선**



봉은사 새신도 안내 창구.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 역시 새신도 유입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5만 명이 다녀간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 코엑스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 더해, 선명상 열풍까지 이어지면서 젊은 층의 발길이 꾸준히 느는 것이다. 특히 박람회를 계기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30대의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봉은사는 체험 중심의 교육과 신행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새신도가 봉은사를 찾으면 가장 먼저 신도안내 창구에서 교육과 기도, 신행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는다.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별도의 입문교육을 열어 봉은사와 참배 예절을 안내하고, 사시기도와 법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봉은사는 무엇보다 새신도를 기초학당으로 이끄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후 신행과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당을 수료하면 신도회 활동과 불교대학, 불교대학원 진학은 물론 지화반과 불화반, 사경반, 선무도 등 다양한 문화강좌에도 참여할 수 있다. 대중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봉은사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초학당 교육과정 개편이다. 봉은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최근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추세와 달리 한 달을 더 늘린 것은 교리 위주의 강의보다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 익히는 교육이 새신도의 정착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봉은사 사찰음식연구소장 동원 스님이 이끄는 사찰음식 체험을 비롯해 108배 수행, 봉사활동, 템플스테이 등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했다. 봉사활동은 신도회와 연계해 실제 봉사 현장을 경험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학당 단계부터 도반을 만들고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면서 신도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 대표를 선출하고 성지순례, 봉사활동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체험 중심 교육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현재 봉은사 기초학당 재학생은 주간·야간·주말반을 합쳐 약 25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특히 30대 비중이 기존 12~15% 수준에서 19.5%까지 늘었고, 75기에 22명이던 30대 교육생은 76기에 4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대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늘었으며, 40대와 60대 이상도 증가세를 보였다.

봉은사 '선명상 아카데미'의 인기도 빼놓을 수 없다. 정규 교육이 부담스러운 방문객을 위한 과정으로, 기초학당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싱잉볼 명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주제를 달리해 선명상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혁진 봉은사 교무교육팀장은 "교무·교육·신도 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교육부터 법회, 신도회 활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봉은사의 강점"이라며 "봉은사가 한국불교의 사관학교 역할을 해 봉은사에서 배운 불자들이 어느 사찰에 가더라도 올바른 신행을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심 사찰뿐 아니라 지역 사찰에서도 새신도 정착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각 사찰은 지역 여건에 맞춘 프로그램들로 초심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양산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사찰 규모가 크고 방문 인원이 많아 '불교대학'을 초심자 입문 과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1학년 과정에서 사찰 예절과 기초 교리를 익힌 뒤 2학년부터는 신행단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단계별 교육 체계를 갖췄다. 매년 400명 이상이 불교대학에 입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층 유입이 늘면서 청년회 가입도 불교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를 기준을 정비하고 있을 정도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세대별 멘토링 시스템으로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기존 청년회 회원들로부터 절하는 법과 법당 예절 등을 배우며 신행에 적응하고, 어린이 법회 역시 또래와 선배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따라 하며 불교문화를 익히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청년회와 어린이 법회 모두 신규 참여가 크게 늘었으며, 여름 어린이 수련회는 모집 4일 만에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도 새신도들의 소속감 형성에 힘 쏟고 있다. 정기 환영식과 새신도 차담, 사찰 안내으로 구성된 3개월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신행단체와 지역 지회 활동으로 연계하고, 6개월마다 구인사를 참배하며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다.

# 서점에도 '힙 불교' 열풍

**불서 상반기 판매 전년 대비 21% 증가**
**불교 입문서 판매량 264% 급증 '눈길'**
**젊어지는 독자층 변화, '사찰음식' 주목**

'힙 불교' 열풍은 서점가로도 번지고 있다. 불교가 힙한 라이프스타일로 소비되며 불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주요 서점의 통계는 이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

예스24에 따르면, 올 상반기(1.1~5.14) 불교 관련 도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알라딘의 불교 서적 판매량도 올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불교 입문서의 성장세다. 이 분야의 판매량은 예스24 기준 전년 대비 무려 264% 급증했다. 기존 불자층을 넘어 불교에 관심이 생기거나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이 대거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입문서로는 〈성불 한번 해볼까〉, 〈불교와 친해지는 만화 사찰의 상징세계〉,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열풍의 중심에는 젊어지는 독자층이 있다. 헤르만 헤세의 고전 소설 〈싯다르타〉의 구매자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이 책은 전체 구매자 중 20·30세대의 비중이 40%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6년(21%)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다. 알라딘의 온라인 판매 통계 역시 6월 24일 기준 30대(29.0%), 40대(27.5%), 20대(24.2%) 순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예스24의 〈싯다르타〉 판매량은 지난 3년(2023~2025년)간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 이에 교보문고 종합 6위, 예스24 해외소설 3위 등을 기록하며 주요 서점의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소설인 〈싯다르타〉가 20·30세대 중심이었다면, 일반 불교 서적은 30·40대의 약진이 돋보인다. 대형 서점 상반기 자기계발 부문 1위(교보문고·예스24)에 오르며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지킨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는 알라딘 기준 구매층의 40대(34.3%), 30대(29.4%), 50대(21.1%) 비중이 주축을 이뤘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을 책으로 재구성한 〈탁! 깨달음의 대화〉 역시 40대(36.6%), 50대(32.0%), 30대(17.9%) 순으로 집계됐다. 불교 서적의 주 소비층이 30·40대 세대로까지 넓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독자층의 연령대가 다변화되면서, 이들이 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도 한층 넓어졌다. 마음챙김이나 명상 관련 서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더해 웰빙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의 흥행으로 사찰음식이 세계적인 웰빙 미식 콘텐츠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도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 예스24의 사찰음식 관련 요리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1% 급증했다. 〈229가지 자연의 맛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이 올 상반기 예스24 사찰음식 관련 도서 판매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교보문고와 알라딘의 요리 및 건강 도서 부문에서도 같은 책과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정관 스님 나의 음식〉 등이 상위권에 진입했다. 생명 존중과 절제의 가치를 담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려는 대중의 선호 변화가 도서 구매로 이어진 셈이다.

주목할 점은 종교 서적 중 불교 서적만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알라딘 김효선 도서2팀 차장은 "작년부터 〈초역 부처의 말〉이 많은 선택을 받으면서 대중들이 일반적인 인문서로서 불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입문서 수요도 늘어났다"면서 "종교 부문 전체는 5월 기준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률이 아니지만, 타 종교와 달리 불서만 유일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서 판매 증가를 이끄는 원인은 무엇일까. 출판 업계는 젊은 층 사이에서 독서 자체를 매력적인 문화로 여기는 '텍스트 힙(Text Hip)'과 '힙 불교' 열풍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불교라는 종교 자체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 상승도 주효했다. 현대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불교 교리도 대중을 이끄는 데 한몫했다.

예스24 마케팅본부 PR팀 김민희 선임은 "불교 관련서의 판매 증가는 최근 마음의 평안과 내면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교 교리에 공감하는 독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MZ세대 유명인들의 도서 추천, 불교적 메시지를 접목한 콘텐츠 및 불교 박람회 이슈 등이 확산되며 젊은 독자들에게까지도 관심이 자연스럽게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불교가 독자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텍스트 힙'과 '힙 불교'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당분간 불교 출판 시장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불광출판사 부스에 전시된 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2026년 7월 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생활

1584호 | 14 | 전면광고

너그럽게 살아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이익을 얻으면 대중과 함께 나눠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유행경》에서

##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요사:60평 외
- 공원산 밑 주차10대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고성
- 부지 : 359평
- 건물 : 대웅전(목조). 요사채. 삼성각. 종각(황동)
- 국유지 약700평 사용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생활가능
- 가액 : 2억원

010-9227-4387

##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보증금 2000만원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 대지 : 367평
- 건물면면적 : 160.36㎡
- 춘장대 IC 15분 거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 가격 : 2억5천만원

010-5046-5788

##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87-5
- 옛집2동, 삼존불
- 대지 : 200평
- 가액 : 7천 2백만원

010-7795-9856

## 사 찰 안 내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124-5길. 황룡사
- 총1197평/대지1080/기타117평
- 대웅전43평. 삼성각2평. 용왕각3평. 요사채1층38평 외 공양간30평. 2층 25평. 주차공간넉넉. 태양광 6W CCTV등등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0-5002-7392

##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 사 찰 안 내

- 위치 : 영광군 법성면 숲쟁이길 69 법성사
- 대지 : 약700평 전 약2300평 건물 150평

010-8730-3090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 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 있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음
- 토지140㎡, 건물146.62㎡, 1층73.31㎡ 2층 73.31㎡ • 매매 : 2억

010-9811-4877

##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 5천만원

010-5316-5669

##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사찰 앞 50평) 총 710평 그외 사찰에서 사용가능한 땅 500평
- 건물 : 슬라브 3동, 향토방 2동 해우소(화장실) 1동 (선물은 모두 무 건물입니다)
- 금액 : 5억원

010-9203-1165

## 토굴 · 수련원 안내

- 위치 : 하동군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97-1(명동길35)
- 대지 : 76.5평 • 본건물 : 20.6평
- 내장 황토벽돌, 외장 이화벽돌, 천장 2중 편백나무시공 ★창고 8평 이화벽돌 ★주차장 8.6평 시멘트벽돌
- 건물구조 : 방3개(화장실 3개 각방), 거실겸 주방시설 윗층 법당11평 내장편백나무 ★신축 10년된 새 집 손 볼곳 없음.
- 마당, 금잔디, 조경완비, 지리산자락, 물 공기 청정지역
- 가액 : 1억4천만원

010-2766-1008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대지 : 1000평, 건물 : 100평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화장실 3개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
- 주차장 500평,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

010-2857-2811

##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댐 인근
-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 및 대지 약 600평, 요사채 50평 법당 가건물 30여평 정도

010-2078-9595

## 전국 사찰 양도양수 전문업체입니다.

사찰 매물 접수(구함) 받습니다.

금호이엔지
010-2236-1339

## 사 찰 안 내

지리산 함양 산 매매

- 전망 좋고 기도 수행하기에 적합함
- 산 2300평
- 스님, 보살 환영

010-7305-505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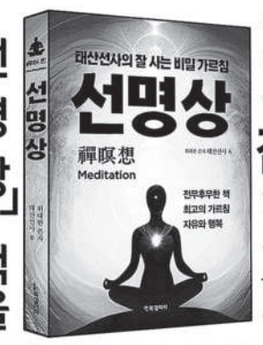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 꼭 「선명상」 책을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피리 · 바라 · 극락무 올려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성불사'에서는 조상천도 '독' 불공을 3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접수 기다립니다

010-2204-8375

##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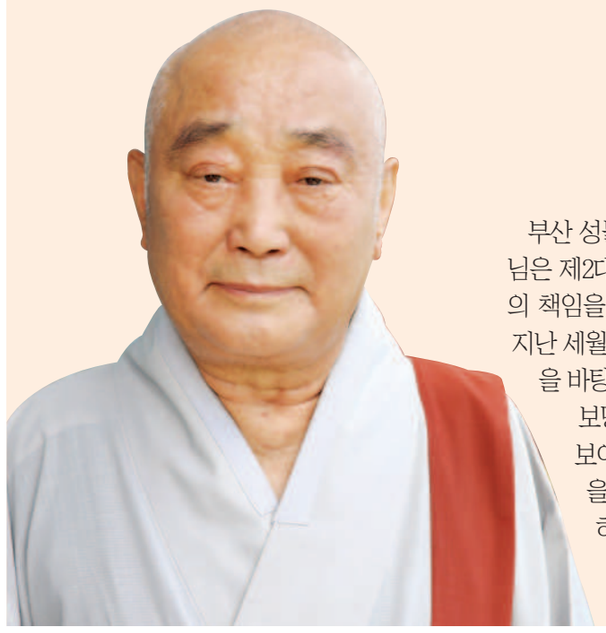
010-2168-2800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

⑤ 법화종 어른스님을 만나다

# 법맥의 등불 잇고 화합의 100년 밝힌다

## “화합은 공심으로 종단을 받드는 수행”



### 원로회의 의장 보명 스님

부산 성불사 주지이자 대한불교법화종 원로의장인 보명스님은 제2대 종정 노정공 스님의 상좌로, 종단의 법맥과 원로의 책임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창종 80주년을 맞은 스님은 지난 세월의 공덕을 되새기는 동시에, 법화종이 화합과 수행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명스님은 법화종의 80년을 단순히 흘러간 세월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묘법연화경의 일승묘법을 받들고 창종주 혜일정각 대조사의 원력을 계승하며, 수많은 대덕 스님과 사부대중이 법화종문의 법등을 지켜온 신심과 정진의 역사라는 것이다.

스님이 바라보는 종단의 미래는 거창한 구호보다 종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출가자와 재가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서로를 불성을 지닌 존재로 존중하며, 종헌종법의 질서 안에서 화합할 때 종단의 내일도 밝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종단 원로를 대표해 화합 당부**

**“종도 화합과 전법 포교가 법화수행”**

특히 보명스님은 화합을 단순히 서로의 입장을 적당히 맞추는 타협으로 보지 않는다.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고 공심으로 종단을 받드는 것 자체가 수행이며, 수행이 빠진 화합은 오래갈 수 없고 화합이 없는 수행 또한 대중을 이롭게 하기 어렵다는 가르침이다. 원로회의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지난 역사를 바르게 돌아보고 후학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종단 어른들의 소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총본산 안정사가 수행과 포교, 사경과 신행, 교육과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중심도량으로 더욱 장엄되기를 발원했다.

보명스님에게 창종 80주년은 지난 공덕을 회향하는 자리인 동시에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점이다. 전국의 법화종도들이 각자의 도량과 삶의 자리에서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메마른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감로수가 될 때 법화종문의 법등도 더욱 밝게 이어질 것이라는 당부다.

## “창종의 이름 품은 도량, 종단 회복의 날을 발원한다”

### 북한산 고양 무량사 무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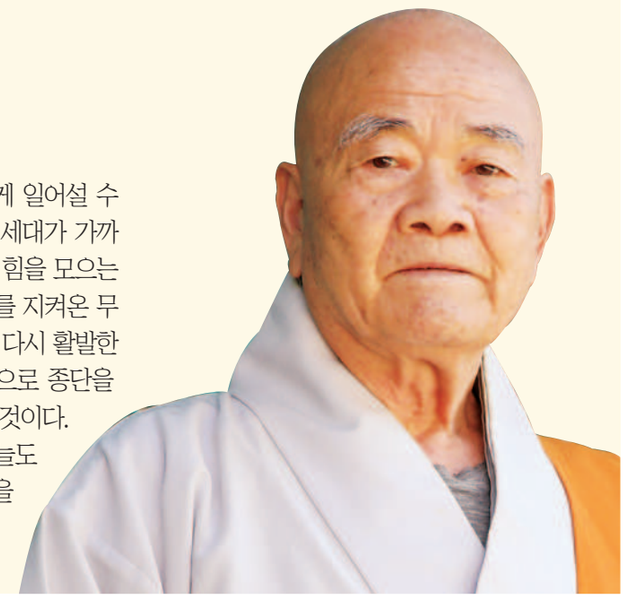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무량사는 대한불교법화종 창종의 첫걸음을 함께한 서울 삼각산 무량사와 같은 사명을 지닌 도량이다. 창종 당시의 원력과 기억을 오늘에 되새기게 하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남다르다.

도량을 지키는 무량스님은 1980년부터 종단 소임을 맡아 총무원 국장과 부장직을 두루 거쳤으며, 경기북부교구종무원장과 포교원장을 역임했다. 총무원 종무행정에서부터 지역 교구와 일선 포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종단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온 스님은 법화종이 힘차게 뻗어가던 전성기와 이후 어려움이 깊어진 시기를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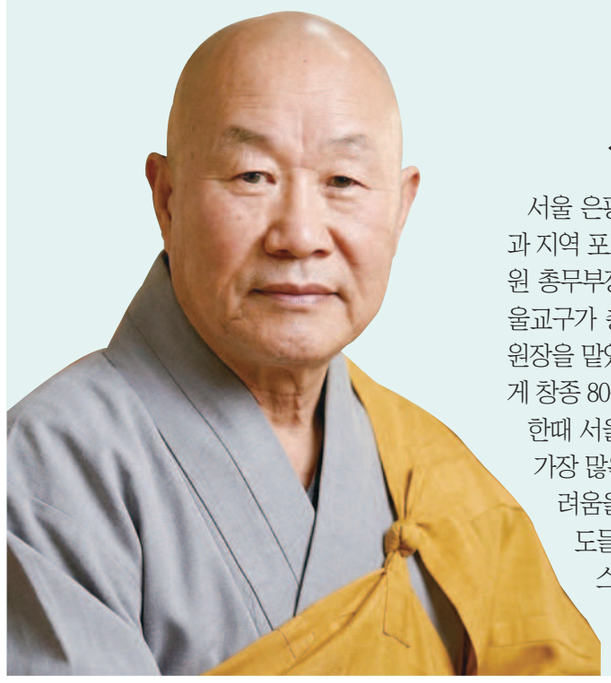
**1980년부터 종무행정·교구·포교 일선…**

**법화종의 전성기와 쇠락 모두 지켜봐**

창종 80주년을 맞은 무량스님이 가장 절실하게 꼽는 과제는 ‘포교의 회복’이다. 과거의 위상을 회고하는 데 머물지 않고, 각 사찰과 종도들이 다시 전법의 현장으로 나아가 법화경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전해야 종단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교, 다음 세대가 가까이할 수 있는 수행과 문화, 사찰과 종도들이 서로 힘을 모으는 화합이 그 출발점이다. 평생 종무와 포교의 자리를 지켜온 무량스님의 서원은 소박하지만 간절하다. 법화종이 다시 활발한 포교 활동으로 생기를 되찾고,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종단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뒤 회향하는 것이다. 창종 도량과 같은 이름을 품은 고양 무량사는 오늘도 창종의 초심을 되새기며, 법화종의 다음 100년을 밝힐 전법의 불씨를 묵묵히 지켜가고 있다.



## “제자리의 마음 회복할 때 종단도 다시 선다”



### 서울 흥창사 주지 혜암 스님

서울 은평구 진관동 흥창사는 오랫동안 수도권 법화 신행과 지역 포교의 맥을 이어온 도량이다. 혜암 주지스님은 총무원 총무부장 등 종단의 주요 행정 소임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교구가 총무원 직할체제로 편입되기 전 마지막 교구종무원장을 맡았다. 법화종의 전성기와 쇠락을 모두 겪은 스님에게 창종 80주년을 맞는 소회는 남다르다.

한때 서울·경기교구는 종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가장 많은 스님이 활동하던 중심지였다. 그러나 종단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교구의 결집력도 약해졌고, 수도권 종도들이 함께 뜻을 모을 구심점 역시 희미해졌다. 혜암스님은 제주교구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듯 서울과 경기의 사찰과 종도들도 서로 연결돼,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스님은 장차 총무원이 다시 서울에 자리해 수도권 종도들을 잇는 중심축이 되고, 흩어진 사찰과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전법과 교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이는 과거의 외형을 그대로 되찾자는 뜻이 아니라, 법화종이 수도권 포교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미래 세대와 만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원이다.

**총무원 소임 역임, 마지막 서울교구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도 다시 뜻 모으길”**

혜암스님이 강조하는 종단 회복의 출발점은 ‘제자리의 마음’이다. 스님은 스님답게 수행과 전법의 본분을 지키고, 불자는 불자답게 신행과 보시·봉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종단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형식과 권위를 앞세우자는 말이 아니라, 출가자와 재가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하게 살아내자는 당부다.

흥창사 역시 이러한 가르침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다. 매년 은평구 진관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백미를 후원해오고 있다. 혜암스님은 지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창종 80주년은 혜암스님에게 지나간 영광을 돌아보는 데 그치는 기념일이 아니다. 서울과 경기의 종도들이 다시 뜻을 모으고, 총무원과 교구·사찰이 서로를 잇는 구심점을 회복하며, 스님과 불자가 각자의 본분을 되찾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은평구 진관동 흥창사는 오늘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그 회복의 씨앗을 묵묵히 가꾸고 있다.







# 비어 있음 아는 자, 신문명에 겁먹지 않아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⑨ 실체는 없다, 다만 작동할 뿐



인간의 언어든 양자역학이든 비트코인이든 본질은 하나로 통한다. 모두 고정된 실체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말의 그물망'일 뿐이다. 첨단 기술의 격변 속에서도 불교가 평상심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 그물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 신기술을 가장 먼저 환대하는 불교

지난 글에서 우리는 조계사 마당에 등장한 AI 로봇 스님과 신기술을 대하는 불교계의 다정한 풍경들을 살펴보았다. 기계에 법명을 주고, 로봇을 도반과 제자로 맞이하는 이 개방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나는 그 답을 불교 특유의 언어관인 '가명론(假名論)'에서 찾아봤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쓰는 말이든 기계가 뱉는 소리든, 그 속에 고정불변한 알맹이나 신성한 실체가 없다고 본다. 말과 문자란 본래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기 위해 임시로 붙인 가짜 이름이자,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일 뿐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인간의 언어 자체가 조건에 따라 직조된 유용한 방편인데, 기계가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새삼스레 경계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크게 없다. 언어가 만든 그물에 갇히지 않는 지혜가 있기에, AI마저 품어 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질문을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한다. 과연 불교는 AI에만 이토록 유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첨단 문명이 등장할 때마다, 불교는 이를 배척하기보다 늘 "허허" 웃으며 가장 먼저 손을 잡고 활용하는 개방성을 보여왔다.

최근 불교계가 현대 과학의 최고봉이라는 '양자역학'을 '말'하고, 심지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마저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흥미롭다. 말 속에 고정된 알맹이는 없다고 보는 불교의 시선이, 최첨단의 현대 문명과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지 그 풍경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려 한다.

### 원래 경계란 없다, 말로 쪼갰을 뿐

현대 물리학의 자랑인 양자역학은 불교가 세상을 보는 눈과 다르지 않다. 물리학자들은 미시 세계의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알갱이들은 측정되기 전까지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안개처럼 겹쳐진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불려 나온다.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묘한 겹침 속에 머문다. 그러다 관측자가 기계를 들이대고 측정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결정된 상태로 드러난다.

이 신기한 물리학 현상은 언어의 속성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원래 자연에는 칼로 자른 듯한 고정된 경계가 없다. 우리의 얼굴을 보면 이마와 볼, 턱은 경계 없이 하나의 살덩이로 이어져 있다. 무지개 역시 실제로는 연속적인 빛의 띠일 뿐, 일곱 가지 색으로 나뉘어 있지도 않다. 그런데 인간이 '이마'니 '볼'이니, 또는 '빨강'이니 '주황'이니 말로 가위질을 하는 순간, 원래는 하나였던 텅 빈 세계가 쪼개지며 고유한 경계가 생겨난다. 말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구획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이런 실상을 일찍부터 꿰뚫어 본 불교의 언어관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세상에 임시로 붙인 이름, 곧 가명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말한다. 양자역학에서의 '관측'이 언어와 불교에서 말하는 '이름 붙이기'와 통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흐릿하게 열려 있던 세계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의 대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공즉시색. 그래서 〈반야심경〉은 불교의 경전이지만, 읽다 보면 마치 "말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는가"를 설명하는 언어학 개론의 서문처럼 느껴진다.

### 불교 세계관의 디지털 코드화

최근의 불교학 논의들을 살펴보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불교적 세계관으로 막힘없이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I 수용 유연, 불교 언어관 '가명론' 때문**
**"고정 실체 없다" 불교와 양자역학 통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실체 없지만 작동**
**금융 언어서도 '공즉시색' 풍경 구현돼**
**언어가 만든 그물에 갇히지 않는 지혜**

블록체인에는 중심이 되는 거대한 중앙 서버도, 거래를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정부나 은행도 없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컴퓨터가 장부를 나누어 갖고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며 연결돼 있을 뿐이다. 일부 불교학자들은 이를 보며 "인드라망처럼 세상에 절대적인 중심은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상호 연결돼 존재한다"는 불교의 무아와 연기법이 디지털 코드 위에서 구현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가상화폐도 그렇다.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은 금괴나 종이돈처럼 눈에 보이는 실물이 없다. 오직 가상의 컴퓨터 장부 위에 적힌 기록과 사용자들의 '약속'으로만 존재한다. 알맹이는 완벽하게 비어 있는데, 가치는 거대하게 움직이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 경제학자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실물이나 국가의 보증처럼 비교적 안정된 근거가 있어야 화폐의 가치가 성립한다고 보았기에, 비트코인을 두고 실체 없는 투기 자산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비트코인은 월가의 제도금융권 안으로 들어왔다. 무의미한 코드의 조합에 불과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현실에서 거대한 가격을 만들고 제도의 방향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지만 작동한다는 이 아이러니는, 고정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세계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언어관으로 보면 어렵지도, 이상하지도 않다.

### 연필 속에 연필은 없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작동하는 원리는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단어)'의 속성과도 닮은 면이 많다. 미국의 유명한 동화 〈프린들 주세요〉를 보면, 한 아이가 '연필'을 '프린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조어로 부르기 시작한다. 온 동네 아이들이 재미와 장난으로 이 말을 한두 번 쓰게 되고, 문구점에 가서도 "프린들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점점 사회적인 '약속'으로 굳어진다. 결국에는 연필을 뜻하는 정식 단어로 사전에까지 등재된다는 스토리다.

우리가 쓰는 '사과'나 '나무' 같은 단어들도 그렇다. 그 소리 자체에는 실제 과일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다. 오직 우리끼리 "이 소리를 사과라고 하자"고 약속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길 뿐이다. 가상화폐도 똑같다. 국가가 담보하지 않아도, 참여자들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인정하겠다는 '약속'이 있기에 돈으로 작동한다. 물론 그 약속이 약해지고 신뢰의 그물망이 느슨해지는 순간, 비트코인 역시 언제든 텅 빈 코드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결국 불교의 언어관에서 세상 모든 단어는 이렇게 부르자는 이 시대의 '일시적 약속'일 뿐이고, 비트코인 역시 화폐로 인정하자는 이 시대의 '일시적 약속'이다. 둘 다 고정된 알맹이 없이, 오직 구성원들의 '신뢰와 합의'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 위에서만 살아 움직인다.

비트코인이 좋은 투자처인지 아닌지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이 가상화폐는 텅 빈 코드가 어떻게 현실에서 움직이는지, 실체 없는 이름이 어떻게 세계를 작동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기에 불교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현상임은 분명하다. 불교가 오래전부터 말해온 '공즉시색'의 풍경이 이제 금융의 언어 속에서도 구현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으니 말이다.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결국 인간의 언어든, 과학의 양자역학이든, 금융의 비트코인이든 본질은 하나로 통한다. 세상을 쪼개어 이름 붙이고 대상을 규정하는 행위는 인간이 만들어낸 정교한 '말의 그물망'일 뿐, 그 그물 너머에는 '고정된 무엇'이 없다는 사실이다.

인류의 신기술과 첨단 문명 앞에서 불교가 불안해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교적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언어의 그물에 갇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 문명이 첨단으로 나아갈수록, 도리어 오래된 불교의 가르침들이 가장 세련된 해석의 틀로 다시 호출되는 장면은 늘 짜릿한 경외감을 준다. 본질이 비어 있음을 아는 자는 신문명이 던지는 질문에 겁먹지 않을 수 있다. 그저 인연 따라 새로이 출현한 텅 빈 뗏목들에 올라타 기술과 문명의 강을 묵묵히 건널 뿐이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 화승이 그린 불보살·나한벽화의 명작

사찰벽화 명작순례

## ⑫ 영천 백흥암 극락전 상벽의 석가오존도와 나한벽화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상벽의 석가오존도와 나한벽화.

### 벽화 그리기에 안성맞춤인 상벽

궁궐이나 사찰 법당 같은 권위와 격식이 요구되는 목조 건축에는 높이의 추구가 필수적이다. 기둥과 지붕 사이에 받침 장치를 마련해서 건축 높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갖은 예술적 단청장엄을 베푼다. 그 받침 장치를 '공포(栱包)'라 부른다. 공포는 가로재인 '첨차'와 그 위에 수직으로 올린 세로재인 '살미'의 중첩적 구조다. 공포를 층층이 올릴수록 높이는 점차 상승하고, 앞뒤 폭도 점차 확장된다. 기둥 벽체 바깥으로 나간 첨차와 살미를 바깥으로 나간 받침 목이라는 의미로 '출목(出木)'이라 한다. 출목은 기둥 벽체를 기준으로 법당 안팎으로 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 통상 바깥으로 빼낸 외출목수보다 내부로 빼낸 내출목수가 하나 더 많다. 바깥으로 외3출목이면 내부로는 내4출목인 식이다. 내부로 한 층 더 빼낸 출목은 법당 내부 높이를 더 높여 웅장한 효과를 연출한다.

백흥암 극락전의 경우 특이하게도 외출목수와 내출목수가 둘 다 3출목으로 같다. 내3출목 위에 바로 장여와 내목도리를 올리고, 그 위에 상벽을 쳤다. 네 번째 출목 높이를 상벽의 높이에 통합했다. 그 덕에 길고 넓은 상벽이 마련됐다. 법당 천정 아래 사방 가장자리에 마련한 한 층 넓은 상벽은 불교 장엄미술의 화면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백흥암 극락전 상벽에 그린 탁월한 불교미술은 특별하게 마련한 상벽의 바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무릇 미술의 명작은 〈논어〉에 나오는 구절처럼 '회사후소(繪事後素)'의 원리에 따른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바탕을 희게 마련한 후에 한다.

백흥암 극락전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벽화들은 천정 높이의 상벽에 베푼 그림들이다. 법당 내부 상벽엔 모두 19점의 벽화가 남아 있다. 상벽의 벽화 19점 중 18점이 '나한도'다. 나머지 한 점이 '석가오존도'다. 상벽에 그린 벽화에서 능수능란한 운필과 채색 능력을 갖춘 화승의 역량이 한눈에 드러난다.

### 당대 탁월한 화승이 단청벽화 완성

백흥암 극락전은 임진왜란 때 왜구의 방화로 소실한 것을 1643년에 중건한 건물이다. 상량문 기록에는 그로부터 40년 후인 1673년에 단청과 벽화를 장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의 극락전 단청과 벽화는 1817년, 즉 200여 년 전의 것으로 확인된다. 그 같은 사실은 백흥암의 보화루 누각에 걸려 있는 '백흥암극락전 단확공덕기'(1818년) 현판 기록에 남아 있다.

1816년 당시 백흥암의 수좌인 구련 스님이 여러 대중을 모아 '대법당(극락전)에 단청을 볼 수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동전과 미곡을 내놓자 무자생과 갑오생 두 동갑계에서도 선뜻 성금을 냄으로써 단청공사를 시작하였다. 총괄 기획은 전 총섭 총언이 맡았다. '단확공덕기'에서는 단청벽화를 그린 화승과 완성한 벽화를 두고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찬하고 있다.

"두루 인연들이 만들어져 북송대의 뛰어난 화가 용면(龍眠)과 같은 화사(畫師)를 맞아 수개월 만에 벽화를 완성하니 '서촉의 진채(眞彩) 요 장승요(張僧繇)의 묘기'라 하겠다."

문장 속 '용면'은 소식, 미불과 함께 11세기 북송대에 이름을 떨친 백묘화 화가 이공린의 호다. '장승요'라는 사람은 남북조시대 양나라의 전설적인 화가로, '화룡점정' 일화의 주인공이다. 그만큼 당대의 탁월한 화승이 백흥암 극락전의 단청벽화를 완성했다는 의미다. '단확공덕기' 찬문에서 중국의 미술 역사에 불세출의 이름을 남긴 이공린과 장승요에 비견한 화승은 과연 누구실까?

공주 마곡사를 중심으로 불모의 맥을 이룬 남방화소의 금호당 약효, 문경 사불산 대승사 중심의 사불산파의 신겸, 양산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약한 임한, 전남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붓의 신선' 의겸 스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벽화에 불화 그리는 고도의 집중과 섬세한 필력, 철선 운용 능력 구사 채색에서도 불화 기법 그대로 구현 대승사 사불산파 화승 신겸의 필력**

1818년 기록인 백흥암의 '단확공덕기'에는 두 명의 양공(良工) 이름을 올리고 있다. 퇴은 신겸, 선덕 지연 두 분이다. 퇴은 신겸을 수화승으로 이름을 올렸다. '퇴은 신겸'은 누구실까? 사불산파의 중심에 계신 '퇴운 신겸'과 자연스레 겹쳐진다. 한자 법명도 같고, 활약한 시대와 공간도 겹친다. 퇴운당 신겸 스님은 불화 그린 화승이면서 대선사였다. 문경 사불산 대승사 중심으로 불모의 맥을 형성한 사불산파의 대표적인 화승으로 추앙받았다. 1780년대부터 1830년대까지 붓질을 이은 것으로 알려진다. 1828년에 그린 의성 고운사 '사십이수관음보살도'에 신겸 스님의 화승으로서의 역량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흥암 극락전의 벽화를 신겸 스님이 그렸다면 '단확공덕기'의 찬문이 공치사가 아님을 이내 수긍하게 된다.

그런데 상벽의 석가오존도 옆에 있는 화조도의 하단에 남긴 묵서 기록은 다른 사실을 추가한다. "본사(은해사) 화원 지연 등 5명과 석남사 화원 포진, 해인사 화원 우희 등 3명이 함께 동참하여 가경 22년(1817년) 4월에 단청벽화를 완성하였음"을 밝혔다. 이 같은 기록을 토대로 하여 정리해 보면 백흥암 극락전의 단청벽화는 1816년에 구련 스님이 발원하여 무자생과 갑오생 두 갑계에서 충당금을 내서 신겸 스님을 수화승으로 하고 은해사, 석남사, 해인사 화원들이 동참하여 1817년 4월에 단청벽화를 마무리했음을 알 수 있다.

### 18점의 나한벽화에 43분의 나한

백흥암 극락전 상벽은 나한의 진경이 펼쳐져 있다. 동서남북 사면의 상벽에 모두 18점의 나한도가 빙 둘러 연속한다. 남측면 상벽에 11점, 좌우 동서측면에 각 3점씩, 북측면 상벽에 대형화면 1점, 그렇게 해서 모두 18점이다. 포벽의 불보살도, 나한도를 포벽마다 독존으로 그렸다면 상벽의 벽화들은 2, 3명씩 무리 지은 군상으로 그린 점이 서로 대비된다. 가로로 긴 하나의 화면에 많게는 8분을 봉안한 경우도 있다. 화면 하나의 평균 크기는 대략 세로 65㎝, 가로 55㎝ 정도다. 최대 화면은 서측면 상벽의 3점 중 중간에 있는 화면으로 크기가 세로 65㎝, 가로 216㎝에 이르는 대형화면이다. 화면에는 7분의 나한이 군집해 있다. 18점의 화면에 등장하는 나한 수는 모두 43명이다. 모든 나한은 늙고 굽은 노거수와 함께 그렸다. 고요와 침묵에 길들인 형상이 서로의 거울을 보듯 닮았다. 노거수 표현이 다양하다. 붉은 꽃이 만개한 나무도 있고, 향나무처럼 푸르른 나무도 있고, 매화와 복사꽃이 흐드러진 무릉도원 느낌을 자아내는 화면도 있다. 특별하게는 등이 휜 나한의 신체 곡선 따라 굽은 나무도 있다. 얼마나 오래 한 자세를 유지하며 선정에 들었던 것이었을까? 나무마저 나한의 수좌 틀고 앉은 자세대로 자랐다. 노거수가 나한이고, 나한이 노거수다. 나무 위로는 성스러운 구름이 자욱하게 퍼져서 고요하고 청정한 수행공간을 엿보게 한다.

나한들의 몸짓이나 표정도 천태만상이다. 위로 손을 뻗어 붉은 태양을 움켜쥔 분이 있는가 하면 두 팔을 들어 올려 개구쟁이 표정을 짓는 익살꾼도 있다. 가운데에 책 한 권을 두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 위에 걸터앉아 깊은 삼매에 든 분도 보인다. 나무에 기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턱에 여의를 받치고는 생각에 잠겨 있기도 하고, 과일 공양을 받기도 한다. 등을 긁고 있거나 상대방의 귀지를 파내주는 파격적인 장면도 있다. 옷차림, 헤어스타일, 손에 쥔 지물 등이 각양각색이고 어느 하나 정해진 틀이나 규범 없이 하나같이 자유분방하다. 화면에 베푼 진채 색감도 중간색으로 온화하고 다채로움으로 풍성하다. '단확공덕기'에서 '서촉의 진채'라고 찬한 대목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벽화에선 보기 힘든 과히 색채의 향연을 펼쳤다.

### 석가오존도는 〈무량수경〉 설법장면

극락전 벽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화면은 북측면 향우측 상벽에 그린 석가오존도다. 석가모니불께서 설법하는 장면을 주요 등장인물로만 개략적으로 표현했다. 극락전에 그린 석가모니불 설법 장면임을 고려할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부근 영축산에서, 법장 비구가 48대원으로 성취한 아미타불과 극락정토를 설명하신 〈무량수경〉, 또는 〈아미타경〉 설법장면으로 짐작할 수 있다.

화면에 등장하는 존상은 보현보살-석가모니불-문수보살 삼존과 가섭과 아난, 그리고 타방불 여섯 분이 다다. 두 보살과 제자, 타방불이 구름을 타고 하강하듯이 구름 꼬리를 뒤로 길게 늘어트린 장면이 인상적이다. 붓질이 섬세하고 불화의 법식을 벽화에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어 경이롭다. 부처님과 보살, 두 제자의 상호 및 의습 표현에서 불화를 그려내는 고도의 집중과 섬세한 필력, 흐트러짐 없는 선의 운용 능력이 구사됐다. 불화 기법 그대로다. 색을 입힌 채색원리도 불화 그 자체다. 발만 보아도 한눈에 사자임을 알 수 있다. 이 벽화에 당대에 특출했던 신겸 스님의 필력이 담겼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백흥암 극락전 상벽에 한 국산사 나한벽화의 정수와 또 하나의 불화가 있다. 벽화라 쓰고 불화라 읽는다.



노재학 작가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 02일 도착
▶ 동참금 : 299만원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10월14일 출발~10월20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6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9월02일 출발~17일 도착
▶ 동참금 : 590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출발일 : 9월04일~9월08일(5일간)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1월24일 출발~12월03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 7대 성지순례, 아잔타석굴 13일
출발일 : 10월20일~11월01일(13일간)
■ 일정: 인천-델리-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성지순례 6일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 우물 속에 달이 있다고?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 ④ 이미지와 실재 : '우물 속의 달'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우물 속 달 진짜로 착각한 원숭이 이야기**
**〈욕심 많은 개〉· '튤립 마니아' 사건 같아**
**플라톤, 동굴 비유로 '진짜 달' 이데아 강조**
**부처님, 드러난 허상 아닌 진실 보라 주문**
**마음의 여유 갖고 이미지에 빠지지 않길**

언제부턴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숲속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로망을 갖게 됐다. 아무래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영향을 받은 것 같다. TV 속에 비친 자연인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연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록 그들처럼 살지는 못해도 전원생활의 낭만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낸 적이 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시골 주택으로 이사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브라운관에 비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단열 상태가 좋지 않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것은 기본이었다. 이름 모를 수많은 벌레 때문에 한여름에도 저녁에는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 물론 봄과 가을 몇 달은 지내기 좋았다. 결국 1년 정도 살다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몸을 옮겼다. 전원생활과 편리성을 모두 충족하기에 시골 아파트가 괜찮은 대안이라 여긴 것이다.

이처럼 각종 매스컴에 보이는 모습과 현실 사이에는 작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수많은 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화면 속의 이미지와 마감까지 몇 초 남지 않았다는 말에 혹해서 물건을 샀다가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미지와 실재가 항상 똑같으면 좋겠지만,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미지가 중시되고 있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가상 세계와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미지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불교 동화를 찾아보았다. 우물 속에 비친 달을 보고 진짜라고 착각한 원숭이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불교 동화는 〈자타카〉뿐만 아니라 〈백유경(百喩經)〉이나 〈잡보장경(雜寶藏經)〉 등 여러 경전에도 등장한다. 이번 원숭이 이야기는 중국 동진(東晉) 때의 승려인 법현(法顯)과 북인도 출신의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함께 번역한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 나온다. 출가 수행자의 계율, 즉 생활 규범이 담긴 책이다. 승가의 규범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전생담이나 여러 우화가 등장하는데, 원숭이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다.

불교계의 이단아로 악명 높은 데바닷타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승가의 화합을 해치고 있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스스로 괴로움을 받는지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러한 행동은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주 오랜 옛날 가시(伽尸)라는 나라에 파라나(波羅奈)라는 이름의 성이 있었는데, 그곳 숲속에는 500마리의 원숭이 무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원숭이들은 숲속을 돌아다니다 니구율(尼俱律, 무화과나무의 일종) 나무에 이르게 되었다. 그 나무 아래에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고, 마침 밝은 달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그때 원숭이 우두머리가 우물 속에 비친 달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달이 오늘 죽어서 우물 속에 떨어졌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 저 달을 꺼내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둠 속에 갇힐 테니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원숭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물에서 달을 꺼낼 수 있을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때 우두머리가 좋은 방법이 있다며 말했다.

"내가 먼저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있을 테니, 너희는 내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차례대로 서로의 꼬리를 잡고 길게 늘어뜨려 우물로 내려가면 달을 꺼낼 수 있을 거야."

원숭이들은 대장의 말에 따라 서로 꼬리를 맞잡고 우물 속으로 길게 늘어섰다. 하지만 물에 닿기도 전에, 원숭이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말았다. 결국 꼬리를 잡고 매달린 원숭이들은 한꺼번에 우물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때 수신(樹神)이 나타나 이처럼 어리석은 숲속의 축생들이 스스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하겠느냐는 내용의 게송을 읊었다.

부처님은 그때의 원숭이 우두머리가 바로 지금의 데바닷타이며, 나머지 원숭이들은 그를 따르는 비구라고 하였다. 그때 고통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다.

### 이미지인가, 실재인가?

이 이야기는 원후취월(猿猴取月), 혹은 수중착월(水中捉月)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글자 그대로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했다는 뜻이다. 이 동화를 읽으면서 문득 이솝우화 가운데 〈욕심 많은 개〉가 떠올랐다. 오늘 소개한 원숭이와 물속에 비친 이미지를 보고 멍멍 짖다가 입안의 고기를 놓친 개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원숭이와 욕심 많은 개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둘 다 현실 속 달과 고기가 아니라, 우물과 냇물에 비친 이미지에 먹혀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백(李白)은 술에 취해 물속에 잠긴 달을 건지려다 빠져 죽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우물 속의 달 이야기가 우리의 실제 삶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튤립 마니아(Tulip Mania)'라 불리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전 세계 무역을 통해 많은 돈을 번 네덜란드 귀족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터키의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꽃, 튤립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이 꽃이 인기를 끌자, 한 송이에 집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치솟게 된다. 꽃의 실제 가치가 아니라 이미지와 환상이 만들어낸 물거품이었다. 이러한 거품이 꺼진 것은 우습게도 '이것은 그냥 꽃일 뿐'이라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허상에서 빠져나오니 비로소 현실이 보인 것이다.

'튤립 마니아'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최초의 자산 거품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건이다.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닷컴 버블 사건 또한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우물 속 이미지에 먹혀 다른 원숭이의 꼬리를 잡고 달려든 것처럼, 닷컴이 들어가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인간 사슬을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오늘에도 여전히 각종 주식 방송이나 리딩방의 유혹에 빠져 달을 건지려는 이들이 있다. 원후취월의 메커니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철학자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있다. 동굴 안에 갇힌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자신의 눈에 비친 모습이 실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사물을 보면, 자신이 본 그림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이 비유를 통해 플라톤은 감각적인 동굴 속 그림자, 물속의 달로 비유되는 현상세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성을 통해 '이데아(Idea)'라고 불리는 진짜 하늘의 달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강경〉에는 "만약 모양으로써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여래를 볼 수 없다(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는 구절이 나온다. 형색[色]이나 음성 모두 허상이자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참다운 여래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를 보려거든 진리를 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불교의 정도(正道), 즉 바른길이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염불이나 명상 등을 수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처님은 바칼리라는 비구가 병들었을 때 문병을 간 적이 있다. 그가 부처님께 예경(禮敬)을 드리는 것이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자, 부처님은 정색하면서 썩어 문드러질 육신을 봐서 무엇하냐며 크게 질책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여래를 보려면 진리를 보라는 말씀을 남긴다. 겉으로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라는 것이다. 〈어린 왕자〉에서도 중요한 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다.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적지 않은 불자들이 영험하다는 절이나 불상을 찾아 복을 비는 등 바칼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혹여 형색이라는 이미지에 먹혀 정작 중요한 부처님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이처럼 이미지에 의해 각색된 세계에 빠지면, 실제의 현실이 안 보이거나 왜곡할 수 있다. 이제 우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일이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쉽고 간단할 수도 있다. 우물을 향하고 있는 시선을 하늘로 돌리면 되는 일이다. 우리가 평소 밤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기로 하자. 거기에 진짜 달이 있다.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달을 우물 안에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 겨우살이환 | 여 주 환 |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
|---|---|---|
|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
|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해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

| 골담초환 | 산수유환 | 어성초환 |
|---|---|---|
|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
|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 | | |
|---|---|---|
| 가루자죽염 | 125g | 45,000원 |
| 가루자죽염 | 230g | 82,000원 |
| 알갱이자죽염 | 125g | 50,000원 |
| 알갱이자죽염 | 230g | 90,000원 |
|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 20g | 9,000원 |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 | | |
|---|---|---|
| 보급형 민속죽염 | 500g | 20,000원 |
| | 250g | 10,000원 |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 먼저 나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십시오

**죽는 공부가 쉽지 않아요**

**질문** 공부를 할 때는 일단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죽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살아나고 살아나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딱 죽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 우주 전체의 생활이 인간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건 이 마음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이는 거라고요, 그걸 알면. 한군데다가,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기고 살면 그게 죽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즉 말하자면 마음을 내기 이전은 기름과 같고 마음을 내는 것은 차를 끌고 다니는 바로 법이 되고, 그러니까 몸이 움죽거리는 건 차와 같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거,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또는 먹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하나도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공했다고 하고 그거를 놓고 가는 거라고 하고 그거를 죽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해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사이에 아내가 와서 "여보!" 그런다면 바로 남편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는 "아빠!" 하고 부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을 하죠. 그런 많은 이름들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해내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찰나찰나 이렇게 아버지, 남편으로 착을 두지 않고 지금 그대로 돌아가는 그 도리를 알면 바로 죽이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 놓고 돌아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바퀴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그냥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항상 그게 지금 습관에 의해서, 물질적인 습관에 의해서 항상 이게 옳으니 이게 그르니 이러기 때문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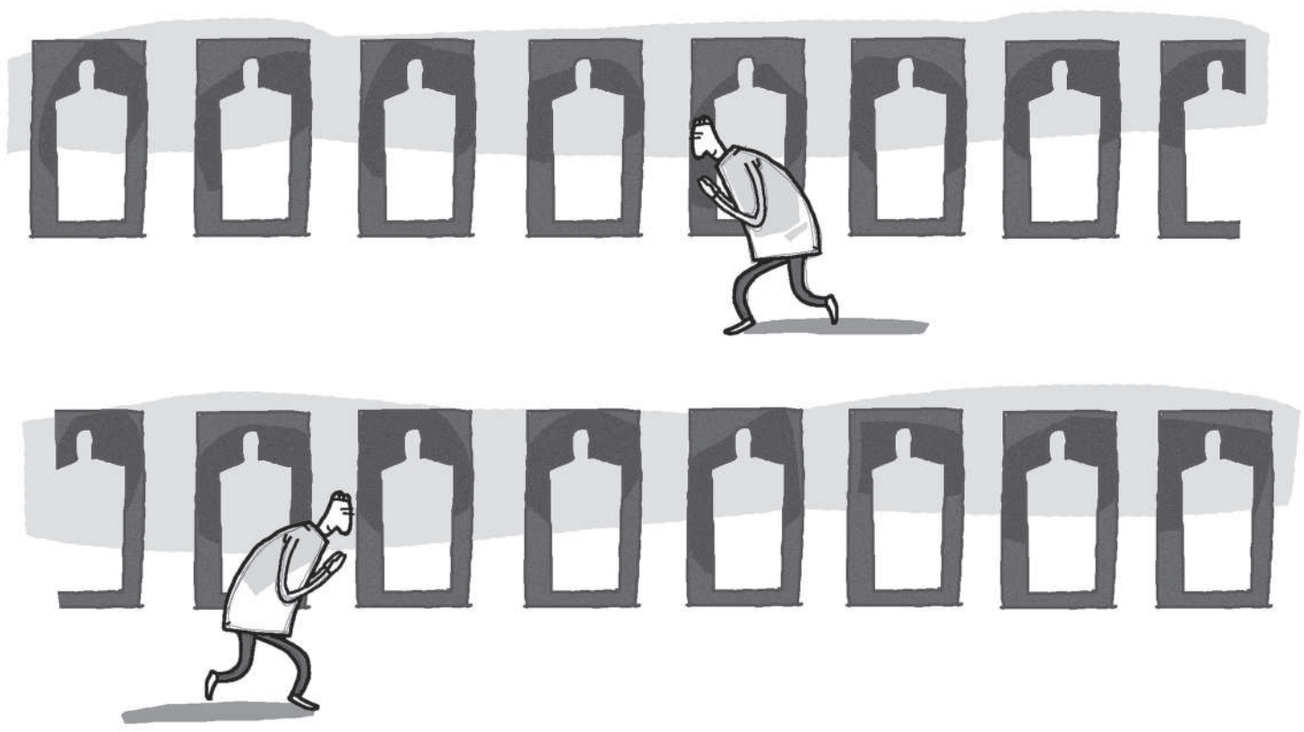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은 항상 마음에 의해서 모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내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현실에 인연으로 인해서 인과가 돼서 내 몸뚱이 속에 짊어지고 모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몸뚱이 속에, 즉 말하자면 그 많은 생명이 13억이라고 해도 고건 간단히 추린 건데, 그 의식이 만약에 한마음에서 수만 개도 나올 수 있으니깐 그건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의식들이 내 한마음에서 좋게 생각하면 좋게 따라 주고 언짢게 생각하면 언짢게 따라 주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남과 나와 더불어 같이 이익하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데도 모든 거를 용도에 따라서 좋게 생각을 하고 아주 이익하게만 생각한다면 그 몸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다 그 이익한 데로 따라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에서 말하는 숙명통이라는 것은 비유해서 말할 때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과거에 거기 입력이 됐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데 현실에 이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병고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또는 우환이라든가 어떤 안 되는 일이라든가 모든 일체를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과거의 모든 그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팔자나 운명 같은 것이 다 좋게 바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거를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죽이는 거며, 바로 입력을 다시 되시키는 거며, 앞서 입력된 게 다 없어지는 거며, 동시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가정에 우환이 있던 게 없어지고 병고가 없어질 수도 있고 모든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면 상대가 없으니까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걸 거기 맡겨 놓는다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앞서의 입력된 팔자나 운명은 다 녹아져 버리고 자유인으로서의 그 광대무변한 인간 자체의 삶을 맛볼 수 있으니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는지요**

**질문**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마음을 깨달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우주의 근본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직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오대양 육대주도 될 수 있어요. 이 뇌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하게 돼 있나. 우주 천하 만물만생이 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는 것은 생각에, 마음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바로 요런 거다 하고 모르면, 귀도 먹고 그러면 벌레는 벌레대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가다 보면 벗어나게도 되겠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차원에 따라, '전체가 차원이 크고 작은 관계상 눈이 떠지고 귀가 떠지는가.'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편안치 못하게 사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도 백지장 하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진짜 하려면 무조건, 무조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일체 만법, 생활을 다 맡겨 놓고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끌고 다닐 수 있고, 당신만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인공밖에 없다. 대신 가 줄 사람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사람도 없다. 내가 혼자 와서 혼자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참나를 발견하고 감응이 될 때, 그때에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울고 한번 땅을 내려다보고 땅을 치고 울게 되고, 그때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인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 아는 거, 알려고 하는 거, 이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기고 살면 그게 죽는 것이다

☞ 19면에서 계속

런 걸 다 놓으십시오. 우선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뜻을 몰라서 답변을 안 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내 동생 같고 자식 같고 형제 같은 겁니다, 모두. 연세가 높으신 분은 내 부모 같고 모두 이렇습니다. 남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 년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정해 놓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원에 따라서 빨리 싹이 날 수도 있고 더 빨리 클 수도 있고, 아주 밑에서 싹도 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비유하자면 콩이 아주 잘 익었다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탁 벌어지죠. 그런데 덜 익은 거는요, 속껍데기가 짝짝 붙어 가지고는 까도 안 까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임해서 고생을 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안 까지니까. 까지기는 해야 할 텐데 안 까지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몸을 벗는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콩깍지가 탁 벗어지게끔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대로 해 나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생각이 나거든 맡겨 놓고 저 생각이 나거든 또 맡겨 놓고, 울고 싶거든 주인공 붙들고 울고 감사하거든 주인공 붙들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 일 년 계속 가 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모두 겉껍데기로서 애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내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남이 불을 꺼 주는 게 아니라 제가끔 자기 불 끄느라고 애를 쓰지, 누가 불 꺼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가엾게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하고 자기 주인공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주인공이 자기를 얼마나 위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지, 때로는 그렇게 많은 살림살이에서 자기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것도 보여 주고 저것도 보여 주고 꿈으로도 보여 주고 생시에도 보여 주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속습니까. 그래서 환상천도 넘어서라, 모든 것에 속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제 남편은 안 변하는데

**질문** 모든 게 고정됨이 없다 하지만 저의 남편은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저의 남편도 정말 변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답변** 모든 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 자기가 하는 것대로 끼리끼리 이렇게 맞상대가 되고 모이게 되고 거론이 되고 전달이 되고, 그걸 가지고 업보다 업보다 하는 겁니다. 유전이다, 업보다, 인과응보다 이런 문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아주 가난한 어느 여인이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둘이 너무도 가난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도 그렇게 마음이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테 요만큼도 생명에 언짢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남의 거를 거저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고만 죽어 버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 사람이라고 합시다.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항상 믿고 열쇠를 맡기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쪼끔도 깔축은 없는데 융통성이 조금 없어요. 지혜가 있고 '좀 더 하면은 좋을걸….'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너무나 착하니까, 모든 각 우주의 법망에 어디든지 통과가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이것이 인간에게도, 이 지구에도, 어떠한 물체에도, 어떠한 별성에도 통신이 되는 겁니다. 전체 통신이 가능하죠.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어디서 돌보든지 돌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한테 뭐든, 이 마음공부를 하는 분들은 저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보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봅니까, 네? 왜 거길 봅니까? 그거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건 만날 그 그릇에서 엎드러져서 그 그릇에서 만날 헤어나질 못해요. 그게 습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를 그대로 보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물건을 생산해 내도록 자비를 가져라 이 소립니다.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슬었으면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좀 더 이렇게 해서 내면은 좋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거기다 넣으면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거를, 이거는 "이 접시에 쪽이 떨어졌어!" 이럭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어라 이겁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금 이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 용광로에 넣고 말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거든요. 지금 다시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할 텐데, 생산하는 거는 나중이라도 자꾸 넣어야 됩니다. 스스로 넣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 또 발견이 되면서 '아, 그때는 이렇더니 새로이 이게 나오는구나.' 하고 또 달리 보일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물건이 다르니까.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다는 얘깁니다. 고정되게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행을 다른 거를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일 년 후에 다르고 몇 달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정되게만 보지 마시고 둘이 아니게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 어릴 적 잘못이 후회가 됩니다

**질문** 요즘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살피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 많은 곤충들을 잡아먹고 장난으로 개구리도 죽이고 했던 잘못들이 생각나서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들을 녹일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린 일생생활에서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면 부자대로 속이 썩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괴롭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보물 같은 거를 지니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그 보물들이 따라갑디까? 바로 방문 안에서 고합니다. 방문 안에서 "잘 가라. 얘, 언제 봤더냐!" 하고. 그래서 보물더러 "너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하니까 보물은 "네가 좋아서 나를 따랐지 내가 좋아서 너를 따라간 게 아니지 않으냐." 하고는 방문 안에서 고합니다. 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바로 대문 안에서 고합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따라가지도 못하죠. 권세가 아무리 높고 친척이다 부모다 자식이다 하더라도 동구 바깥에서 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엄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를 비롯해서, 즉 말하자면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혼합이 될 때에 이 업식도 따라서, 그 영혼에 따라서 첨보가 됩니다. 첨보가 돼서 바로 인간이 형성된다면 그 또 역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죄지은 것을 부르짖지 말고 현실에 나오는 것을 소멸시키면서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역점을 둬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어쩌다가 남의 파밭에 들어가서 밭을 못 쓰게 만든다 할 때에 고삐를 탁 쥐면서 '야, 너 그 남의 파밭에 들어가서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 하고 탁 채는 그 마음이 바로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모든 일체 내가 살아나가는 거, 일거일동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안 되는 거는 바로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선 굴려서 놓는 겁니다. 돌아가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굴려 놓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마음 도리를 알려면 자기 주처에 놓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형성시켰고 자기를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자기 주처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 주처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 밝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우리가 이 마음 도리를 알려면 자기 주처에 놓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 자기 주처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 그래야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 밝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범부로서 깨달을 수 있는지…

**질문** 출가 수행자들은 끊임없는 정진으로 득도할 수 있겠지만 속세에서 살아가는 저희 범부 중생들이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는지요.

**답변** 물론입니다. 누구나가 다 잘살든 못살든 또 못났든 잘났든 자기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 불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불성은, 즉 말하자면 지금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이름해서 말합니다마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참 광대무변하고 묘하고 각자 자기들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 보배를 보배답게 쓰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싸우게 되고 가정적으로도 싸우게 되고 나라끼리도 싸우게 되고. 또 싸우는 거뿐만 아니라 강도도 많이 생기고 사기도 많이 생기고, 이건 분란이 한두 건이 아니죠. 애들 자라는 것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지요. "네 나무는 네 뿌리부터 믿어야 한다. 그 나무와 뿌리와 같이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고 남의 이름과 남의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니 그것은 몇백 몇천 년 가도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는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너를 의지하고 살아라. 너만이 너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정신계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일일시호일

신장 손상으로 투석 받는 미얀마 출신 외아들

"다시 일해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고파"

민모 씨, 건설현장서 일하며 부모 부양

복통·구토 끝 장 수술 받고 투석 시작

병원비 2000만 원…쌓이는 치료비에 막막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불자들 도움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⑪ 사별의 아픔과 죄책감을 넘어

#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됩니다"

**가난과 시련 이겨낸 삶, 그리고 찾아온 인연**

상담실을 찾아오신 김상담 어르신(가명·72세)은 대화 내내 인생의 동반자와의 사별 경험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르신은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 큰누나의 등에 업혀 자랐고, 둘째 형이 베트남전에 파병을 가면서 비로소 가정의 형편이 나아졌던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6세에 서울로 상경해 친척들 밑에서 가방 제조 기술을 배운 어르신은, 남들보다 빠르게 독립해 공장을 차렸습니다. 한때 월 매출이 좋아 경제적 안정을 누렸으나 IMF 사태로 공장을 정리해야 했고, 결혼 후에는 두 아들을 낳고 이혼하게 됐으며, 남겨진 자녀들을 홀로 돌보는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인생의 동반자는 어르신과 비슷한 처지임에도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서류상 주소지는 달랐지만, 사실상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거하며 서로를 깊이 의지해 오셨습니다.

**20년 동반자 떠나보낸 빈자리와 깊은 고립감**

그러나 올해 2월, 20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가 희귀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르신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2주에 한 번씩 반찬 배달 봉사를 하고 요리 교실에 참여할 정도로 활기찼던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별 후에는 극심한 불면증과 식욕 부진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외출마저 줄어들자 텅 빈집에서 매사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자신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거주지 주변 공공기관에서 먼저 안부를 물어주지 않는 것에 서운해하고, 근처에 마음을 터놓을 상담센터조차 없다는 사실에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모두 내 탓 같습니다" 꼬리를 무는 죄책감**

어르신을 가장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은 고인을 향한 짙은 '죄책감'과 후회입니다.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빨리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술을 권유했던 것이 오히려 인생의 동반자를 일찍 떠나보낸 것은 아닌지 자책하셨습니다. 또한 과거 이혼의 상처로 인해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해 20년을 곁에 있어 준 인생의 동반자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어르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은 6개월간 간병 활동을 했지만, 서류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종의 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임종 소식을 들었고, 뒤늦게 나타난 동반자의 가족 때문에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 가족의 배려로 유골함으로만 하루 동안 짧은 인사를 나눠야 했던 기억은 이후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 괴로운 생각들을 피하고자 "생각하면 안 된다"며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고 계셨습니다.

**연인 잃은 후 찾아온 상실감 · 슬픔**
**사별 과정에서의 죄책감 내려놓고**
**스스로 몸과 마음 다정하게 돌봐야**

**지우려던 슬픔 안아주고 다시 나의 일상 돌보기**

어르신은 떠난 인생의 동반자와의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지우개로 싹 지우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잘라내야 한다"며 밀려오는 슬픔을 차단하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사별 후 사랑했던 이를 떠올리며 아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건강한 애도의 과정입니다. 오히려 암 치료를 위한 수술 권유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어르신이 죄책감을 덜도록 도왔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는 현실적인 홀로서기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의 빈자리를 스스로 채워나가기 위해, 우선 식사를 방해하던 '불편한 틀니 고치기'를 첫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진료를 무작정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중한 치료를 위해 평소 반찬 배달 봉사로 신뢰를 쌓아둔 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믿을 만한 연계 치과를 직접 문의하는 등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용기 있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온전한 홀로서기**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설법을 담은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 아난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느냐"며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자등명(自燈明),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라"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생의 동반자는 어르신의 건강을 챙겨주고 적적함을 달래주던 따뜻한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잠시 곁에 없다고 해서 자책과 후회의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치료를 권했던 것은 사랑하는 이를 조금이라도 더 살리고자 했던 어르신의 가장 간절하고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추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불편한 틀니를 고치기 위해 치과 진료를 알아보고, 홀로 식사를 챙기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다정하게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의 빛을 밝히는 '자등명'의 실천입니다. 20년의 세월과 추억을 더 이상 피해야 할 아픔이 아닌, 앞으로의 길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다정한 그리움으로 간직할 때 비로소 어르신의 삶에 온전한 홀로서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㉟ 허가 받지않은 약의 위험성

# "해외서 이상한 약 좀 사 오지 마세요"

고교 동창 친구들과 모임에서의 일이다. 술잔이 몇 차례 돌고 나면 으레 약에 관한 질문이 약사인 필자를 향한다. 다소 짓궂은, 하지만 꽤 절박한 질문들 말이다.

"너네 약국에 비아그라 있냐? 얼마 정도 하냐?"

"응. 발기부전 치료에 쓰는 약이니까 당연히 있지. 용량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알에 1~2만 원 정도 될 거야. 같은 성분의 저렴한 복제약도 많으니까 굳이 비싼 거 처방받지 않아도 돼."

"귀찮게 뭘 처방을 받냐? 필리핀 여행 갔다가 야시장에서 엄청 싸게 사 왔는걸."

옆에 있던 다른 친구도 거든다.

"맞아. 호기심에 간 성인용품점에서도 약국보다 훨씬 싸게 팔더라고. 약국 비아그라는 너무 비싸더라, 진짜. 약사들 돈 좀 그만 밝혀라!"

"너희 설마 그게 진짜 정품이라고 생각해?"

"정품이라던데? 거기 파는 아저씨가?"

"그럼 가짜 파는 사람이 '가짜'라고 하겠냐? 너희 같은 호구가 있으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가짜 약을 만드는 업자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닐 텐데 비싼 원료를 굳이 정품보다 많이 넣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도 함량이 7배나 높은 제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약 가루의 반죽을 균일하게 하지 않고 대충 섞어서 만들었다는 의미다. 7배 높은 함량이 있다는 말은 나머지 부분은 함량이 말도 안 되게 적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를 '함량불균형'이라고 한다.

함량이 적게 들어가 있는 것은 차라리 다행이다. 효과가 없어서 돈만 날리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함량이 많이 든 약을 모르고 먹었을 때다. 실제로 뉴스 보도를 보면 가짜 약에서 정품 함량의 최대 12배에 달하는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성분이다. 정해진 용량을 먹으면 필요한 곳의 혈관만 적당히 확장되지만, 이 정도로 과한 용량이 몸에 들어오면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돼 심장마비, 뇌졸중, 실명,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실데나필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두통, 안면홍조(얼굴 붉어짐),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린 소화불량, 코 막힘 등이 있다. 이 정도는 약효를 위해서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작용이라 생각해 감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온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청시증을 겪거나,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아픈 광과민증은 더 이상 웃어넘길 일이 아니게 된다.

청시증이란 발기부전 치료제가 효과를 내기 위해 PDE-5라는 효소를 억제할 때, 망막에 있는 비슷한 효소까지 함께 억제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색깔을 구분하는 기능에 일시적인 혼란이 찾아온다. 이런 부작용은 고용량 제품을 복용했을 때 겪게 될 확률이 높은데, 보통 약효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짜 비아그라 함량불균형 · 과함량 문제**
**고용량 시 심장마비 · 뇌졸중 · 실명 위험**
**청시증, 광과민증, 지속발기증 부작용도**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로 지속발기증이라고 불리는, 약효가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있다. 이 부작용은 오히려 약 효과가 오래 가고 제대로 된 거 아니냐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피가 빠져나가지 못해 조직이 괴사될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약 효과를 제대로 받은 뿌듯한 상황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긴급 상황인 것이다.

그 외에도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거나 귀가 갑자기 안 들리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이런 위험이 있는 성분을 정량보다 7배나 먹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웃어넘길 수 있는 상황일까?

가짜 약의 문제는 함량뿐만이 아니다. 쥐가 돌아다닐 법한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만들었을 게 뻔하다. 실제로 압수된 가짜 비아그라를 분석해 보니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는 건 예사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색깔이다. 비아그라 특유의 파란색을 내기 위해 페인트를 넣어서 약에 색을 입힌 경우도 있었다. 가짜 비아그라를 싸게 먹으려다 중금속과 페인트를 들이마시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품은 어떨까? 의약품은 칭량(무게를 잼)→혼합(반죽)→타정(알약 모양으로 찍어냄)→코팅(색을 입힘)의 단계를 거치는데, 의약품은 이 모든 단계에서 함량 시험과 불순물 시험을 거친다.

함량 시험은 약을 만드는 초기·중기·말기에 모두 샘플을 채취해 진행하는데, 모든 조건에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만들어진 후에도 중금속 시험과 잔류물 시험을 하도록 해 불순물 관리를 꼼꼼히 하니 제약회사에 나오는 정품은 믿고 복용해도 좋다.

다시 동창회 자리로 돌아와 보자. 안주로 나온 골뱅이 소면 접시 곳곳에 골뱅이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일행 중 한 명이 그만 참지 못하고 젓가락으로 골뱅이와 소면을 휘감는다. 순백의 소면이 붉게 물들어 골뱅이와 함께 각자의 앞접시에 자리 잡았다. "야! 왜 난 골뱅이가 하나밖에 없고, 네 접시엔 세 개나 있냐?" "이게 바로 함량 불균형의 실제 사례다. 요 녀석아. 이것도 못 참는 놈이 함량이 7배나 차이 나는 가짜 약은 어떻게 사 먹냐!"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우리 복지관은 지금** 12.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노후 준비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색종이로 표현하고 있다.

노년기는 인생의 결실을 맺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은퇴로 인한 역할 변화, 신체적 노화, 사회적 관계의 축소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삶의 방식도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배우자는 노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가 된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부부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활환경의 변화와 관계의 재정립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해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에서는 노년기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부부 10명(5쌍)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부가 함께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임에도 서로의 장점이나 고마운 점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이 많았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하거나 질문에 짧게 답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회기가 거듭될수록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탐색하고 살아온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젊은 시절의 어려움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고민, 가족을 위해 감내했던 희생 등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점은 참여자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와 응원을 나눴다는 것이다.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부부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서적 지지망도 형성됐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 노년기 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소통의 공간이 됐다.

우리 복지관은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아버지 학교, 내년에는 어머니 학교를 운영하며 가족관계 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보라**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대만불교 포교일기** ⑥ 봉사자를 위해 봉사하는 불교

# 중생 향한 '서비스 불교'

어린 사미였던 시절, 대만을 방문한 한국 스님들을 안내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대만 불교의 적극적인 포교 방식을 지켜보던 한 스님이 필자에게 던진 질문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한국에서 대만 불교를 뭐라고 하는 줄 아나? '서비스 불교'라고 한다."

다분히 폄하하는 뉘앙스가 섞인 말이었으나, 필자는 주저 없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서비스 불교가 맞습니다. 저희는 대중을 향한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말합니다."

세속에서 '서비스'라는 단어는 이윤 추구를 위한 고객 응대의 의미로 쓰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인간불교(人間佛教)와 보살도(菩薩道)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중생을 향한 가장 거룩하고 헌신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성도(成道)하신 후 고요한 숲속에 홀로 앉아 열반의 즐거움에만 머물지 않으셨다. 45년 동안 거친 길 위를 걸으며 고통받는 중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셨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서비스'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운 큰스님(星雲大師)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봉사자를 위한 봉사자가 되라(要做義工的義工)"고 가르치셨다. 사찰을 찾아와 땀 흘리는 봉사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수행자들이 먼저 허리를 숙여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스님이나 간부가 대접받는 권위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타인의 헌신을 돕는 서포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광산이 지향하는 '낮춤과 섬김'의 서비스 정신이다.

**스님이나 간부가 타인 돕는 서포터로**
**대중에 신심·환희·희망·편리함 제공**
**중생의 필요 채워주는 동중선이어야**

이러한 대중 섬김의 철학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불문(佛門)의 용상(龍象)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중생들의 말과 소가 되어야 한다(欲做佛門龍象, 先做衆生馬牛)"라는 옛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 있다. 진정한 덕을 갖춘 수행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간의 '서비스 정신'은 오래된 불교의 봉사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불광산의 신조인 '사급(四給)', 즉 '남에게 신심을 주고, 환희를 주고, 희망을 주고, 편리함을 주는 것' 역시 대중을 향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신의 발현이다. 도량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에 편리함과 기쁨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 곧 살아있는 포교이자 수행이다. 대좌 위에 앉아 참선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중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쁘게 발을 놀리는 '동중선(動中禪)'이 바로 서비스 불교의 참모습이다.

보살은 중생이 있기에 존재한다. 중생이라는 넓은 대지가 없다면 보살은 자비의 꽃을 피우고 깨달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따라서 중생을 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언가 시혜를 베푸는 오만이 아니라, 수행자 스스로의 법신(法身)을 기를 수 있게 해준 중생들에게 바치는 고마운 보답이다.

누군가 우리 불교를 '서비스 불교'라 부른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이름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 속에만 갇혀 있지 않고, 오늘날 상처받은 이들의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는 살아있는 '서비스'가 될 때, 불교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㉒ 기다림 그리고 행운 (2)

한국화(수묵화)와 서양화(유화)는 재료의 물성과 기법이 다르다. 당연히 사진을 찍는 방법과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도 달라져야 한다. 수묵화의 경우 농담의 미묘한 차이, 붓놀림에 따른 비백을 최대한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화의 경우는 마티에르, 즉 그림의 질감을 화가의 의도에 맞게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무 조심하면 밋밋해지고, 잘못 과감해지면 여기저기서 색들이 소음처럼 와글거리며 날뛰게 된다.

물방울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그림을 꽤 여러 번 찍었다. 1980년대 중반 당시 국제화랑의 의뢰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스튜디오로 옮겨 올 수 없는 큰 그림을 화백의 작업실에서 찍을 때, 물방울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를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다. 프랑스에서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낙숫물 떨어지는 것을 보는데 어릴 적 시골집의 낙숫물이 떠오르더라는 것이다. 그 두 물방울이 오버랩되어 화백의 캔버스에 맺혔다. 우연히.

사찰 꽃살문을 찍으면서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수단은 '기다림'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가져다준 '행운'은 늘 우연히 왔다. 쨍쨍하던 햇살이 한순간 구름에 가려지면서 숨어 있던 색들이 수줍게 얼굴을 들기도 하고, 기우는 햇살의 그림자가 비 온 뒤의 숲 같은 생동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손영자 작가**



대흥사 천불전.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 리더를 뽑는 일, 보살을 찾는 일

현불논단



금해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과거에는 혈연이나 세습, 혹은 절대자의 권위에 의해 지도자가 결정됐다면 오늘날에는 이사회나 임원회, 그리고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가운데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선거는 평범한 국민에게 가장 강력한 힘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선거는 '개인의 결정'과 '공동체의 결정'이 만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투표소 안에서 이뤄지는 선택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공동체의 결정'이라는 무게를 지닌다. 따라서 작은 오류 하나도 지나칠 수 없고, 선거가 끝났음에도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 6·3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의 결과는 끝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한다. 개인과 사회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화합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치열한 대립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결과의 승패, 옳고 그름을 떠나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에는 큰 용단이 필요하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지속성을 위해 용단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중요한 선거를 앞둔 불교계로서는 이 모든 과정이 큰 울림이요, 가르침이다.

부처님 당시, 데바닷타는 교단의 지도자 자리를 승계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논리

**선거는 끝 아닌 공동체 위한 새 출발점**
**데바닷타 일화, 갈등 포용 리더십 제시**
**공동체 위해 헌신할 불교 리더 선출되길**

와 언변, 수행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제자였으며, 교단의 확장을 위해 여러 방법을 제시할 정도로 뛰어난 행정력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왕족 출신으로 부처님과는 사촌지간이라는 배경까지 있었으니, 그의 요구는 스스로에게도, 일부 대중에게도 지극히 정당하게 보였을 것이다.

데바닷타는 부처님께 은퇴를 권유하며 자신이 교단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붓다의 자리가 인위적으로 세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며 거절하셨다. 이에 반발한 데바닷타는 교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을 해치려는 악업을 짓고 지옥에 떨어지는 파멸에 이르렀다.

이 일화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파탄을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리더와 대중이 어떻게 고통과 갈등을 포용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처님께서 데바닷타에게 미래에 붓다가 되리라는 수기를 내리셨다는 사실이다.

진짜 리더의 힘은 선거 승패에 상관없이 드러난다. 구성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겸허함, 결과를 수용하는 책임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 공감하는 인류애 등이 리더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불교계의 리더는 '붓다'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라는 사실이 바탕을 이룬다. 리더는 '부처님과 보살'처럼, 대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 존재여야 한다.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며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수행으로 삼는 존재이다. 우리 구성원들은 그러한 리더를 존경하고 의지하며 닮아가고 계승하게 될 것이다. 올해 불교계 선거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행자, 대중을 품을 보살을 찾는 기쁨의 시간이기를 발원한다.

# 하루살이와 인스턴트 카르마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참으로 오랜만에 장편 소설을 완독했다. 〈달라이 라마의 고양이〉 시리즈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가 데이비드 미치(David Michie)의 명상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전법 활동하는 티베트 출신의 타시 스님으로, 내가 뿌린 카르마(업)의 씨앗이 즉시 열매를 맺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자비심의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유쾌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필자가 이 소설에 관심을 가진 것은 윤회와 업 사상을 불교 윤리의 핵심 테마로 보기 때문이다. 불교의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 경전에 이르기까지 윤회와 업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윤회와 카르마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보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윤회와 업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실천을 위한 동기화를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카르마는 윤회의 핵심 동력이다. 불교는 운명론적인 업 관념을 비판하면서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여 선한 업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업에는 자신이 행한 행위의 인과응보를 개인이 받는 개인업과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받는 공업(共業)이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카르마, 즉 업을 전생-현생-내생의 순환과정의 틀에서 보는 것에 익숙하

**교통수단·통신 발달로 지구촌 급변**
**환경 파괴·기후 변화 등 공업 급증**
**지금 여기서 보리심으로 선업 짓길**

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옥이 무섭지 않냐?"라는 말은 나이 든 사람들의 한탄과 질책에 자주 등장한다. 필자가 소설 〈인스턴트 카르마〉에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지금 여기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업보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삶의 현장에서 즉각 응보의 사례는 많을 것이나 이를 카르마의 작용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잘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지구촌은 백여 년 전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근대화 이전의 백 년은 지금의 일 년과 비교되기도 한다. 다양한 교통수단과 통신의 발달은 지구촌 사람들을 한 그릇에 담는 뷔페 음식 같은 삶의 양식에 살게 만들었다. 카르마적 사유는 농경시대의 배경에서 출발하였고 그 작용도 느리고 순환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업의 작동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구성원이 함께 짓는 공업의 모습도 환경 파괴, 기후 변화, 괴질 만연 등 다양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와 어지러운 회전목마를 탄 현존 인간은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 윤회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카르마, 즉 업이 춤추는 마당은 바로 '여기 지금'이다. 윤회와 업의 윤리적 역할도 지금 여기에서 체감 있게 다가올 것이다. 자비의 윤리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지혜로운 이기심'에서 출발한다. 지금 당장 선한 업을 짓고 그 업보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삶을 그려 본다. 하루살이의 지혜가 바로 보리심(菩提心)이다.

社 說

# 서울시의회의 입법 폭거

서울시의회가 끝내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분을 저버렸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임기를 불과 6일 남겨둔 6월 24일,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을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교분리 원칙 훼손과 특정 종교 특혜 논란으로 이미 한 차례 철회·폐기됐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특별위원회안으로 둔갑시켜 강행 처리한 것은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입법 폭거다. 이 과정에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수개월 동안 제기해 온 '헌법 가치 훼손' 지적은 철저히 외면됐다.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주재하는 미사와 신앙 집회, 선교 프로그램이 핵심인 명백한 가톨릭교회의 종교 행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특정 종교 행사의 명칭을 그대로 담은 조례를 제정해 행정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더욱이 이미 국제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 조례를 만든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공공 재원의 종교적 사유화를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선례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가결**
**정교분리 · 공교육 중립성 훼손 우려 확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 자원의 동원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 120여 개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과 급식·위생시설을 숙박과 행사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이는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전락시켜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방학 기간이라 해도 돌봄과 방과후 활동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설 훼손 시 복구 비용까지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교육재정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무리한 입법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황을 면담한 자리에서 세계청년대회에 "우리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종교 간 형평성과 여론을 외면한 채 특정 종교 행사를 국가 차원으로 격상시킨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조례 강행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지원 논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교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고 연등회까지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한 시의회 일각의 궤변은 문화와 역사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불교계는 이번 조례안 가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각 종단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과 행정 지원의 위법성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헌법 가치와 공교육의 중립성 훼손 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특정 종교에 대한 공적 특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울시의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원칙의 무게를 다시 새겨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7월 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7월 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7월 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원사
• 주 지 : 수남 (속명 : 이동걸)
• 주 소 : 양산시 하북면 진목로46 2층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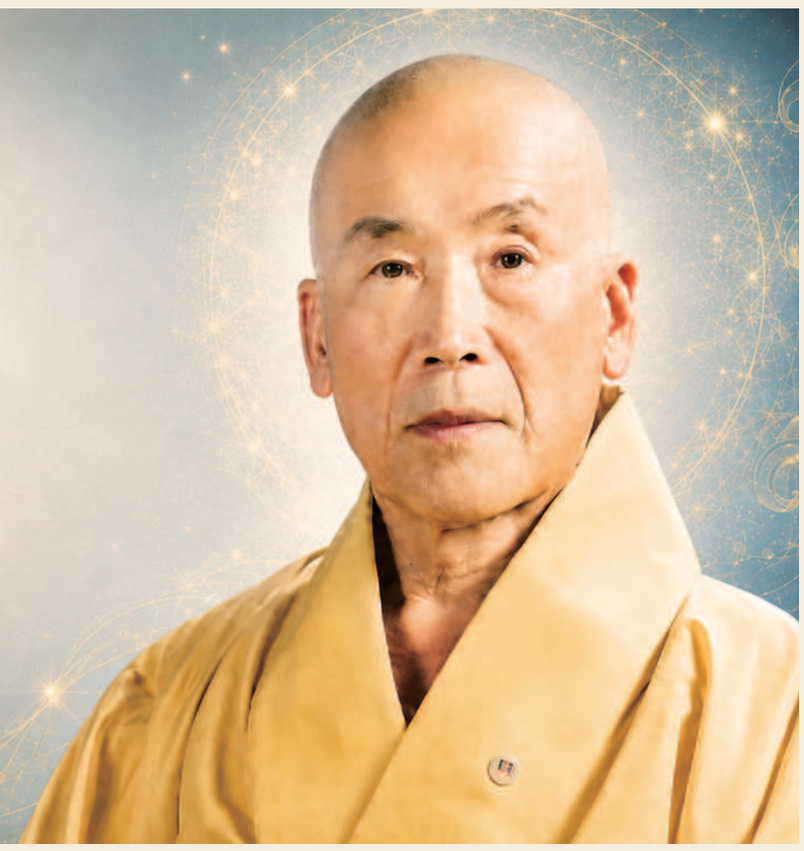
2026년 6월 23일

대한선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 일붕 서경보 존자 열반 30주기

## 평화의 사도, 一鵬 서경보 존자의 위대한 발자취



2026년 6월 23일은 한국불교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며 전 세계에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계법왕 일붕(一鵬) 서경보(徐京保) 존자가 원적에 든 지 30주기를 맞는 날이다. 세수 83세, 법납 64세로 사바의 인연을 거둔 일붕 존자는 생전 '포교 · 역경 · 도제 양성'이라는 불교의 3대 실천 덕목을 몸소 행하며 한국불교를 넘어 세계불교 중흥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한 선지식이었다.

존자가 남긴 발자취는 방대하다. 기네스북 5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말해주듯, 그의 삶은 곧 불법홍포의 대장정이었고, 인류 평화를 향한 원력의 실천이었다. 열반 30주기를 맞아 일붕 존자의 탄생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되짚고, 오늘의 불교계와 사회에 남긴 가르침의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 〈편집자 주〉

### 상서로운 탄생과 구도의 길

일붕 존자는 1914년 10월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리의 유서 깊은 이천서씨 가문에서 부친 서성현 공과 모친 이묘생 여사의 장자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존자는 총명함이 남달랐다. 5세에 천자문을 익혔고, 16세에는 마을 서당의 훈장을 맡을 만큼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소년 경보는 세속의 학문에 머물지 않았다. 인간 존재의 근원과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한 의문을 품고 전국의 산천과 명찰을 순례하며 참선 수행에 매진했다.

마침내 1932년, 19세의 나이로 제주 산방굴사에서 혜월(慧月)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하며 본격적인 구도의 길에 들어섰다. 이어 1935년 전북 위봉사에서 유춘담(柳春潭) 스님으로부터 '하나의 큰 붕새'라는 뜻의 법호 '일붕(一鵬)'을 받았다. 훗날 세계를 무대로 불법을 펼칠 선지식의 이름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다.

### 구법 열정, 선교 융합 이어지다

구법을 향한 존자의 열정은 당대 고승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1936년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박한영 대강백으로부터 백파 강맥을 전수받았으며, 1940년에는 김산사 포광 김영수 스님 문하에서 수학했다. 이후 오대산 상원사에서 방한암 선사 문하에 들어 안거를 성만하며 선과 교를 두루 익혔다.

월정사 강원 강사로 후학을 양성하던 중에는 월정사 주지 이종욱 스님의 추천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1944년 일본 임제종 묘심사 임제전문대학 전문부에서 수학하며 선불교의 깊이를 더했고, 이 시기 쌓은 수행과 학문은 훗날 존자의 세계 포교와 교육 불사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 생활불교 주창, 학문 금자탑 세우다

광복 후 1950년 귀국한 일붕 존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교화중생'과 '불법홍포'의 원력을 세우고 본격적인 교육·포교 활동에 나섰다. 진주해인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펼쳤고, 부산 동아대학교 철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태국 방콕대학교 교환교수로 활동하며 한국불교의 사상과 전통을 해외에 알렸다.

1962년에는 불국사 주지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를 역임하며 사찰 행정과 불교교육 양면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 수행자로서의 엄격함, 학자로서의 깊이, 포교사로서의 열정은 이 시기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존자의 학문적 정진도 멈추지 않았다. 1969년, 56세의 나이로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모교인 동국대학교로 돌아와 불교대학 학장을 세 차례 연임했다. 이를 통해 후학 양성과 불교학 발전의 기틀을 다졌으며, 정년 퇴임 이후에도 세계 각국을 누비며 학문과 포교를 이어갔다.

특히 세계 여러 대학으로부터 126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한 일은 존자의 학문적 성취와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는 세계 최다 박사학위 소지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기록으로 이어졌다.

### 누구나 불법 접하는 '현대불교'

일붕 존자가 평생 강조한 것은 산중에 머무는 불교가 아니라 대중의 삶 속에서 숨 쉬는 불교였다. 그는 '현대불교'와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누구나 일상에서 불법을 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철학서, 교양서, 시집, 연구논문 등 평생 1,042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세계 최다 저서 출간'이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다. 불교예술을 통한 포교에도 각별한 원력을 기울였다. 존자는 선필(禪筆)을 통해 불심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으며, 40여 년 동안 하루 50장에서 100장에 이르는 선필을 휘호했다. 입적에 이르기까지 약 100만 장의 선필을 전 세계인에게 나누며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힘썼다.

### 한국불교 현대화 · 세계화 개창
### '해동 거성'의 유산을 돌아보다

### 세계불교 대동과 인류 평화 앞장

일붕 존자의 안목은 늘 시대를 앞서 있었다. 그는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니라는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세계화를 모색했다. 1988년, 75세의 나이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을 창종하고 초대 종정으로 추대된 것은 그 원력의 결실이었다. 이는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존자의 원력은 한국불교의 경계를 넘어 세계불교의 대동으로 확장됐다. 1992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세계불교대회에서 전 세계 157개국, 5,100개 불교단체의 만장일치로 '세계불교법왕청 초대 법왕'으로 추대되는 역사적 위업을 이뤘다. 또한 112개국 1,044개 단체로부터 전 인류의 스승을 의미하는 '존자(尊者)' 칭호를 봉대받으며 세계불교계의 큰 어른으로 자리매김했다.

존자의 행보는 종교의 울타리에만 머물지 않았다.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인류 평화와 민족 화합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전국의 길지와 세계 각국에 757개의 '통일기원시비'와 95개의 '일붕 동상'을 건립했다. 이는 불교적 평화 사상을 사회와 세계 속에 구현하려는 실천이었다.

또한 유엔(UN) 전권대사로 활동하며 국제사회에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했고, 열반 한 달 전까지도 미국 뉴욕에서 102개국이 참여하는 UN 산하 세계평화교육자협회를 주재하며 인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원력을 다했다. 이러한 공로로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 연속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는 영예를 안았다.

### 신명을 바친 대장정의 마무리

일붕 존자의 생애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불사였다. 존자는 ▲세계 최다 박사학위 126개 ▲세계 최다 저서 출간 1,042권 ▲세계 최다 통일기원시비 건립 757개 ▲세계 최다 선필 휘호 약 100만 장 ▲단일 석굴법당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의령 일붕사 석굴법당 건립 등 5개 부문에서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되는 대기록을 남겼다.

그 안에는 불법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려는 포교자의 간절함,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려는 학자의 열정,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를 이루려는 수행자의 원력이 담겨 있다.

평생 자신의 안위보다 중생 교화와 세계평화를 먼저 생각했던 일붕 존자는 1996년 6월 25일, 음력 5월 9일 오전 11시 40분 주석처인 세계법왕청 일붕선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았다. 세수 83세, 법납 64세였다.

일붕 존자가 평생 실천한 대중 포교와 교육, 선교일치의 정신, 그리고 인류 평화를 향한 자비의 원력은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는 현대 사회에 더욱 절실한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스님의 유지를 잇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은 "일붕 존자님은 불교의 실천 덕목을 몸소 보이신 해동의 큰 선지식이자,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의 중흥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신 참스승"이라며 스님의 위업을 기렸다.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 서경보 존자 30주기 추모다례재 엄수

### 6월 23일, 일붕선원 대법당서
### 종정 대륜 스님 등 300명 참석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평생을 헌신한 일붕(一鵬) 서경보(徐京保) 스님의 열반 30주기를 맞아 숭고한 가르침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 산하 일붕존자 추모다례재 봉행위원회는 6월 23일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세계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제3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종정 대륜 스님을 비롯하여 총무원장 혜일 스님,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 종회의장 도정 스님, 호계원장 동청 스님, 원로의원 승원 스님, 교육원장 지언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전국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단 주요스님들이 6월 23일 서울 일붕선원에 모여 일붕 서경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는 교육원장 지언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추모 의식행사와 총무부장 동심 스님이 사회를 맡은 2부 추모다례재로 나뉘어 진행됐다. 타종을 시작으로 종정 대륜 스님, 총무원장 해일 스님,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의 헌향 및 헌화가 이어졌으며, 삼귀의례, 우리말 반야심경, 종회의장 도정 스님의 상축, 호계원장 동청 스님의 행장 소개 순가 진행됐다.

종정 대륜 스님은 "일붕 서경보 스님 입적하신지 30년이 흘렀다. 사리를 수습한 기억이 새록새록하다"며 "스님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으로 꼽힐 만큼 수많은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했다.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이어 함께 절차탁마하자"고 법문을 내렸다.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일붕 큰스님께서는 일붕선교종을 창종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셨고,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쉼 없이 정진하신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다"며 "오늘을 계기로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 민족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종단 주요 스님들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은 "큰스님께서는 다음 생에는 대도인이 되어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애쓰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열반의 순간까지 몸소 보여주신 보살이셨다"며 "오늘 추모재가 후학들이 올바른 수도인으로 거듭나고, 일붕선교종이 어디서나 빛을 발하는 종단이 되도록 발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구성표

| 재단이사회 | | 종정 / 총무원 | | 원로회의 | |
|---|---|---|---|---|---|
| 이사장 | 일명 | 종정예하 | 대륜 | 원로의원 | 혜천 현암 |
| 부이사장 | 경담 | 총무원장 | 혜일 | | 법성 법선 |
| 상임이사 | 오원 | | | | 승원 경담 |
| 이사 | 혜천 | 종정비서실장 | 지명 | | |
| | 법도화 | | | | |
| | 현소 | | | | |
| | 선우 | | | | |

| 중앙종회 | | 종무위원 | | | 교구종무원장 | |
|---|---|---|---|---|---|---|
| 종회의장 | 도정 | 호계원장 | 동청 | 감사원장 | 법광 | 경기남부교구 | 지안 |
| 종회의원 | 재단이사회 | 교육원장 | 지언 | 포교부원장 | 덕산 | 경기북부교구 | 지흘 |
| | 고봉석경 | 포교원장 | 지명 | 문화부원장 | 해동 | 경남교구 | 덕운 |
| | 무착정암 | 문화원장 | 제법 | 총무부장 | 동심 | 대구교구 | 무상심 |
| | 서현보은 | 기획추진위원장 | 지광 | 총무국장 | 보륜 | 울산교구 | 현산 |
| | 동철성운 | 선거관리위원장 | 붕원 | | | 전북·전남교구 | 지명 |
| | 혜성백운심 | | | | | 제주교구 | 제법 |
| | 여래자 | | | | | | |
| | 교구종무원장 | | | | | |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